

새로운 청지기들 526명 임직

11월 26일 오후 4시 양재 사랑홀 '2022 권사·안수집사 임직예배'
명예권사 4명, 권사 193명, 안수집사 329명(남자 102명, 여자 227명)

온누리교회 새 청지기 526명이 임직된다. 11월 26일(토) 오후 4시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2022 권사·안수집사 임직예배'를 드린다. 이날 명예권사 4명, 권사 193명, 안수집사 329명(남자 102명, 여자 227명)이 청지기로 세워진다(11월 25일 기준).

2022 임직예배는 1부 홍성호 장로 대표기도, 온누리세라핌합창단 축하연주, 이재훈 목사 설교, 2부 안수기도, 크룩스 특순, 김영애 권사 권면, 임직증서 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최현주 권사(도곡공동체), 김삼선 집사(평택온누리교회), 진효진 집사(특별한초대공동체)가 대표로 임명장을 받는다.

임직 대상자들은 반드시 임직예배에 참석해야 한다. 지각이나 불참하면 임직을 받을 수 없다. 복장은 남자 검정색 정장(흰색 셔츠), 여자 검정색 혹은 짙은 색 바지정장(자켓 필수)에 흰색 블라우스(셔츠)를 입어야 한다. 교회 주차장은 3인 이상 동반 차량만 이용할 수 있고, 나머지 차량은 양재 환승주차장을 이용



사진은 지난해 권사·안수집사 임직예배.

해야 한다(4시간 무료 주차권 지급, 셔틀버스 운행).

김희정 권사(경기A공동체)는 "포기하지 말아야 할 전통(3돏)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도전(5돏)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

님의 일꾼 되고 싶다"고 다짐했고, 김주영 안수집사(관악금천공동체)는 "예수님과 짐을 나누어 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안수집사가 되고 싶다"고 고백했다.

이번 임직 대상자들은 지난 9월 3일부터 11월 12일까지 이어진 '2022 임직자스쿨'을 수료했다. 새벽기도회, 성경통독, 독서보고서, 큐티 등 개인영성훈련도 모두 이수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올바른 교회 호칭〉

교회에서 흔히 '피택 장로', '장립 장로' 등의 호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교회 헌법이 정하는 장로 호칭에는 '원로 장로', '은퇴 장로', '사무장로'가 있을 뿐, '피택 장로'나 '장립 장로'는 없다. 따라서 이 용어들은 정식 호칭은 아니다. 장로 선출 후 훈련을 통해 장로장립까지의 과정을 표현한 '행정적 용어'이다.

그럼에도 교회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장로'는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 무흠 세례교인(임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자"로 규정되어 있다. 이들 가운데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찬성표를 받을 때 비로소 장로로 선출된다. 이렇게 하여 선출된 자를 가리켜 '피택'(被擧)이라 한다. 즉, '선택(택함)'을 받았다'는 말이다.

그 후 장로로 피택된 자는 '4개월 이상 당회 아래서 교육을 받고 노회고시에 합격하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헌법 정치 제42조) 당회가 정한 날짜에 장로 임직식을 갖고 장로로 안수를 받게 된다. 이를 가리켜 '장립'(將立)이라 한다.

따라서 피택과 장립은 엄연히 구분된다. 비록 '피택 장로'나 '장립 장로' 같은 표현이 헌법의 공식 호칭은 아니나 안수받고 장로가 되기까지의 절차상 구분이 요구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행정적 표현으로 문서 기록 중에 사용한다. 하지만 '피택 장로님' 등의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바른 표현이 아닌데, 이는 '안수집사'로 피택받고 훈련받고 있는 '피택 집사'에게도 '피택 안수집사'라고 부르지 않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2022 사랑애포 나눔 시작한다!

대학청년부 11개 공동체 12월 3일부터 17일까지

대학청년부가 '2022 사랑애포 나눔'을 시작한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11개 공동체별로 12월 3일(토), 10일(토), 17일(토)에 실시한다. 서울 시내 주민센터와 복지관, 지역교회 등 13개 기관과 연계해서 불우이웃 및 차상위계층 가정 1천 55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요셉청년부 중랑구복지관 80가구, 길청년부 종로노인복지관 70가구, 여호수아청년부 교남주민센터 200가구, J4U청년부 공릉동종합사회복지관 80가구, SNS청년부 수서명화복지관 100가구와 산마루교회 30가구, W청년부 나섬교회 40가구, 갈렙청년부 답십리동주민센터 50가구, CHPLUS청년부 등대교회 40가구, Pole2대학부 작은자교회 50가구, 허브대학부 신양장로교회 150가구와 중앙사회복지관 85가구, 하늘대학

부 관악노인복지관 80가구를 섬길 예정이다.

대학청년부 사랑애포 나눔 사역에 참가해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싶은 청년들은 각 공동체 온라인 주보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인원은 선착순 마감한다. / 홍하영 기자

당 회

12월 3일(토) 오전 6시
서빙고 본당
안간: 2023년 당회운영위원 선출,
2023년 예산안, 장로은퇴식

제직회·공동의회

제직회: 12월 4일(일), 2부 예배 후
대상: 모든 제직
공동의회: 12월 4일(일) 3부 예배 후
장소: 서빙고 본당
안간: 2023년 예산안

2022 온누리찬양 Festival!

12월 3일 오후 3시 양재 사랑홀

온누리장로합창단 창립 10주년을 맞아 '2022 온누리찬양 Festival'을 개최한다. 12월 3일 오후 3시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진행된다.

온누리장로합창단, 온누리세라핌합창단, 온사랑합창단, 온누리남성선교합창단, BEE Luce Choir, 축복의 통로(강남A공동체), 온누리여성선교합창단, 온누리선교재단합창단, 물뿔합창단(부천민음공동체),

온누리목회자합창단 등이 참가한다.

박봉래 장로(온누리장로합창단 단장)는 "2022 온누리찬양 Festival은 온누리교회 모든 찬양팀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며 그간의 어려움을 떨쳐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성도들을 초청했다.

/ 김영선 기자

2023년 장로장립후보 안수집사 명단 *가나다순

서빙고(18명)		성동광진		양재(15명)		이신준 푸른누리		김승욱 평택		한승만 남양주		당회운영(5명)	
강종도	OCC	심천보	이성신	일산	강기홍	브릿지33	이종우	도곡	김형석	수원	사역(5명)	권혁은	강남D
곽태일	신용산	이원장	윤산	관악금천	김동원	송파B	차준근	송파A	문정식	부천			
구자엽	교양은평	이찬주	관악금천	영등포구로	김종민	강남A	한동욱	분당B	박용식	양지	고길범	2000선교	김지학
김동우	한강	정연식	정릉역	영등포구로	김창원	강남E	한영우	Point5	양현열	대전			
박현	서대문	정용욱	정릉역	동작	노성환	강남D	허대행	강남B	윤상철	강동	박용익	대학천년	분당B
박용권	김포	정찬희	정릉역	가정사역	송기선	서초B	캠퍼스(12명)		이상형	인천			
손기태	노원	최용일	최용일	동대문중앙	양성철	분당A	김상균	강동	이성일	부천	황성주	차세대	홍승우
신귀현	S브릿지	하상진	하상진	이춘	윤석일	서초A			임재남	수원			
신재영	양천	이성형	이성형	과천의왕	이삼형	과천의왕			정석순	대전	총 55명		

맛있는 말씀 해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막 16:17)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 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막 16:17~18).

성경을 읽다보면 기적과 관련된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문제는 우리가 바라는 기적이 항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럴 경우 성도들은 곧바로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내가 믿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는 것이 확실한 것인가? 아니면 기적이란 단순히 하나의 상징에 불과한 것인가? 과학과 의학이 발달한 시대에 어떻게 신유(神癒)와 축사(逐邪) 같은 초월적 세계를 믿음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오늘날에도 기적은 존재하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자연(nature)이나 초자연적 사건(super nature)이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둘째, 성경에 기적이 나타나는 구절들을 관찰해보면 항상 우리의 믿음과 연관되어 있다. 믿음과 관련 없이 시험하거나 흥미로 여길 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부하셨던 것을 알 수 있다(마 4:1~11).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적은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반대로 기적이 주어졌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항상 좋았던 것이 아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말이다. 따라서 오늘날 성도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면 매우 좋겠지만, 혹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기적은 나의 기대보다 하나님의 필요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은 언제나 단순한 사건이라기보다 표적(sign, 헬라어 ‘세메이아’)으로써의 의미가 강하다. 표적이란 기적 그 자체보다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에 초점이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마가복음 16장 17~18절 말씀을 이해해보면,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네 가지 표

적이 따를 것이라 설명한다.

첫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축사하는 표적이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어서 마귀에게 포로 된 자를 누구나 해방할 수 있다.

둘째, 새 방언을 말하게 된다. 방언은 개인의 영적 체험이자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중요한 수단이다(행 2:3~4).

셋째,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표적이다(행 28:3~6). 예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이 믿는 자를 은혜와 보호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의미다.

넷째, 환우나 병든 자를 위해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는 표적들이다(약 5:16). 우리가 믿고 따르는 구원의 하나님은 필요하면 기적의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시다. 사복음서에도 예수님이 여러 마을과 도시를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치유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다(막 1:38~39, 마 4:23~25, 9:35, 눅 4:31~41). 그 이름으로 나타난 모든 기적은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을 보여주고 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 치유, 그 밖에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수많은 기적을 소개하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대할 때 기적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궁극적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임을 간파해서는 안 된다. 귀신이 나가고, 각종 질병이 낫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그들은 언젠가 또다시 병들고, 유한한 세계에서 죽음을 경험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이 땅의 삶을 넘어서 다시는 아픔이나 고통이나 눈물과 죽음이 없는 영원한 세계에 거하게 된다(계 21:4). 결론적으로 기적을 믿지 않는 태도와 기적을 믿되 기적만 추구하려는 잘못된 두 가지 신앙을 매우 경계해야 한다.



김상수 목사
(대전온누리교회)

〈생명의 삶〉QT 프리뷰(Preview)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기

11월 28일~12월 4일
시편 35~38편



목상포인트:

시편은 인생 중에 만나는 고난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알려 주는 고난 해설서다. 시편 기자는 자신을 괴롭히는 악인들로 인해 깊은 고통과 신음 속에 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이유로 고난의 길

을 걸어야 하는지 모른다. 그를 힘들게 하는 악인들은 그들의 죄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형통과 번영을 경험한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고난의 복판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한다. 이번 주간 시편 35~38편에서 인생의 고난 중에 ‘내가 믿고 신뢰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목상해 보자. 신음하는 나의 인생을 불드시고, 구원하시 하나님을 기대하며, 시편 기자와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자.

35편: 시편 기자는 ‘나와 다투는 자’, ‘나와 싸우는 자’, ‘나를 쫓는 자’ 등 다양한 악인들에게 이유 없는 비난과 미움을 받는다. 그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신의 정당함을 입증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다. 또 선을 악으로 갈

고, 거짓 증언을 일삼으며, 자신의 고통을 즐거워하는 악인들을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한다. 시편 기자는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악인들 앞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찬송하겠다고 다짐한다.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는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36편: 악인은 자기 자랑에 빠져 자신의 죄악과 양심에 눈을 감는다. 그들의 말은 속임수뿐이고 스스로 악행을 선택한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세상에 사는 그분의 백성을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돌보신다. 그분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숨는다. 시편 기자는 악인들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호소하며 악인들의 심판을 간청한다.

37편: 시편 기자는 악인들의 형통을 보며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한다. 악인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은 잠시에 불과하고, 그들은 분명 망할 것이다.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화평을 주시는 분이다. 악인의 칼은 의인을 찌르려 하지만, 결국 자신을 찌르는 칼로 되돌아온다. 의인의 삶은 하나님이 불드시기 때문이다. 의인들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악인은 미래가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다.

38편: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는 시편 기자는 탄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다. 그는 자신의 무죄함을 항변하기보다 징계를 당하는 이유가 죄 때문임을 인정한다. 감당하기 힘든 징계의 무거움은 그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그로 인해 종일토록 슬픔을 경험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는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이 겪는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기도로 고백한다. 그는 자신을 무너뜨리려는 원수들 앞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힘 있게 의지한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하나님의 사람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비난이나 오해의 중심에 설 때가 있다. 그때 인간적인 마음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자. ▶악인들의 형통은 잠시의 경험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의인의 삶을 주목하시고 불드신다.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선행과 내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징계를 당할 때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자기 삶을 돌아봐야 한다.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신뢰하며, 내 삶에 있는 죄의 흔적들을 하나님께 고백해 보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어머니를 위해!

몇 주 전 어머니와 저를 위해 기도를 부탁을 드렸던 강물결 자매입니다. 저와 어머니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 7월 교통사고 이후 어머니께서 완치판정을 받아 퇴원하셨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했는데 기도해주신 분들 덕분에 급수가 인정되어 요양사 선생님 파견을 받았습니다. 선하고 성실하신 분으로 배정되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중보기도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우울증과 무기력증에서 많이 회복되어 매일 아침 일찍 깨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어머니께서 거동이 어려운데 병원에서는 “못 걸을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치료자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회복시켜주시고, 거동할 수 있도록 역사해주시기를 함께 기도해주시고요. 그리고 어머니께 이전에는 없던 알츠하이머 증상이 생겼는데,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의 손길로 치료해주시도록 기도해주시고요.

제가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머니를 지혜롭게 잘 모실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요. 어머니께서 치매 증상으로 우울할 때가 많은데 사랑과 빛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요.

/ 강물결 자매(여호수아청년부)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로마서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인간의 책임, 곧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11장에서 바울이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하나님의 선택을 동시에 다룬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에 응답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울의 소원이 로마서 9~11장 초반부에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과 인간의 책임이 ‘이율배반’ (antinomy) 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전혀 모순이 없습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혹은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일 뿐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은혜와 진리가 총만하더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경험과 판단으로는 은혜와 진리가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은혜 없는 진리, 진리 없는 은혜만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습관이며, 모든 것이 총만하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모순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 마련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하나 되듯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예정하심과 인간의 책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다면 전적으로 인간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심판받아 마땅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분명한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인간의 책임이기에 구원받지 못한다면 인간의 책임입니다. 스스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거부한다면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며 나간다면 의에 이르고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의를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너무 쉽고 단순한 진리임에도 사람들에게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되는 것은 자기 의가 마음속에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마

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면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는 것과 부르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믿음은 지적 동의 그 이상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의지하고, 신뢰하고, 인격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려면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부르는 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으로 행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모두 이해해야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진리들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이해가 됩니다. 내가 이해해서 믿는 것 같지만, 믿고 따라가기에 이해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들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들어야 한다고 말하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들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지도 못 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라는 말씀에 감춰진 의미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령한 음성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책에 빨간색으로 강조해서 표시한 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직접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 쓴 전기가 아닙니다. 복음서 내용 대부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입니다. 그 말씀을 뒷받침해주는 상황과 배경을 설명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핵심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대할 때는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하신 말씀 앞에 믿음으로 응답할 때 예수님의 직접적인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직접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상이나 철학 체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살아 계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경외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살아 계신 예수님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도록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전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우리가 책임지게 아닙니다. 우리의 책임은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운명을 우리가 좌우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전하는 책임입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는 사람이 전파하면 구원의 역사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사자, 메신저, 대사란 자기 스스로 임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은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느냐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분별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확인해 주고,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파송하는 일이 교회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현대선교운동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청년 시절 교회선교위원회를 찾아가 인도 선교사로 가겠다고 신청했습니다. 그때 어느 원로 지도자가 “이보게 젊은이, 하나님께서 인도의 이교도들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실 때는 자네 도움 없이도 하나님이 하실 걸세”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이 대답에 굴복할 사람이었다면 인도 선교는 시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정하심과 인간의 믿음과 헌신이 하나될 수 있기에 윌리엄 캐리가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전해

지는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들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보냄 받은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믿는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끌고 갑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책임은 보내시는 하나님, 전파하시는 하나님, 선교하시는 하나님, 구원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통로로서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듣고,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누군가 말씀을 전해 주는 이가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스스로 무엇인가를 깨닫고 구원받은 이가 누가 있었습니까? 복음의 말씀이 들렸기 때문이고, 그 말씀을 전해준 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해준 이를 보내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헌신, 어느 공동체의 파송, 누군가의 전파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지금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출애굽 기적의 역사,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 만나와 메추라기 역사 등 초자연적인 역사가 수없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었느냐 이 말입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 불신앙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기적과 표적으로는 믿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어질 것 같지만 오히려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의 전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속 전해지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음으로 응답하는 일을 통해서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너무 정확하고 신비합니다. 이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들을 향해서 “그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이 있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 중에서 가장 주목받지 못하고, 땅과 인접해서 가장 쉽게 더러워지는 부분이 발입니다. 하나님은 그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2장 7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위로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장차 일어날 회복의 말씀을 미리 전해 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들이 멸망하고, 그들이 승리함으로 자유와 평화가 임하고, 구원이 임한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율리픽의 하이라이트는 마라톤입니다.

(13면에 계속)

그림으로 그려보는 내 이야기!

온누리지역아동센터 미술전시회 ‘날다(FLY)’
12월 4일까지 남산도서관 1층 남산갤러리



온누리지역아동센터가 12월 4일까지 남산갤러리에서 미술전시회 ‘날다(FLY)’를 진행한다.



친구들 단풍놀이 잘 다녀왔나요? 아직 단풍놀이를 다녀오지 못한 친구들은 서울에서 단풍이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한 ‘남산’으로 올해 마지막 단풍놀이를 다녀오면 어떨까요? 울긋불긋한 단풍을 보면서 올해의 가을에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남산에서 단풍놀이를 마치고, 또는 단풍놀이를 시작하기 전에 들르면 좋은 곳이 있어서 추천해요. 남산도서관(서울 용산구 소월로 109) 1층 남산갤러리에서 진행되는 미술전시회 ‘날다(FLY)’예요. 미술전시회 ‘날다(FLY)’에는 온누리지역아동센터 친구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어요. 이번 미술전시회에는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중국, 베트남 등 7개국 40여 명의 다문화가정 친구들이 참여해서 160여 개의 작품을 전시했어요. 2018년부터 연 2회 진행된 온누리지역아동센터 미술전시회가 올해로 10회를 맞이했어요. 원래는 온누리M센터에서 전시회를 했는데, 올해는 10회를 기념하며 모두가 함께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남산갤러리에 작품을 전시하게 되었어요. 미술전시회 ‘날다(FLY)’는 12월 4일(주일)까지 진행되니까 부모님과 함께 다문화가정 친구들의 멋진 작품을 구경하러 떠나보세요!

지난 11월 22일(화) 열린 미술전시회 ‘날다(FLY)’ 오픈식에 다녀왔어요. 그곳에서 온누리지역아동센터에서 공부하는 다문화가정 친구들의 멋진 작품을 보고 왔어요. 친구들이 자기 작품을 소개했었어요. 친구들이 그림으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지 한

번 들어볼까요? 김지윤 학생(중국, 초등3학년), 알렉산드라 학생(러시아, 초등4학년), 김현우 학생(중국, 초등1학년)이 작품을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지윤: “제 그림을 이렇게 멋진 곳에 전시하고, 소개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가장 기억에 남는 그림은 새와 바다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그릴 수 있어서 좋았어요. 바닷속에는 무엇이 살고 있을지 상상하며 그렸어요. 제가 새 그림을 가장 좋아하는데, 새가 날아가는 모습이 아름다워서 표현하고 싶었어요. 흰 도화지에 새가 날아가는 하늘을 표현해야 해서 색칠이 어려웠는데, 다 그리고 나서 정말 뿌듯했어요.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시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온누리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께 감사드려요. 나중에 꼭 멋진 화가가 될 거예요!”

알렉산드라: “이번 전시회에 제 그림이 가장 많이 걸렸대요. 14개나 있어요. 제가 그린 그림들을 많은 사람에게 소개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해요. 그림을 그릴 때 피곤하고 힘들었는데 전시한 그림들을 보니까 뿌듯하고 기뻐요. 제 작품 중에 하트 그림을 소개하고 싶어요. 여러 가지 색깔을 사용해서 하트를 그리고 색칠했는데, 여러 가지 모양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모든 사랑은 예쁜 것 같아요. 온누리지역아동센터에서 미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미술도 재미있지만, 다른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제 꿈을 찾아가고 싶어요. 함께

응원해주세요!”

현우: “남산에서 멋진 풍경을 보고, 제 그림도 볼 수 있어서 정말 기분이 좋아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저희 그림을 구경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인 딸기랑 멋진 동물 공작새를 그렸어요. 제가 좋아하는 친구랑 결혼하는 상상을 하면서 결혼식 그림도 그렸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그려서 그런지 그림을 그리는 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렸어요. 저는 커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멋진 군인이 되고 싶어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온누리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도 지켜줄 거예요!”

온누리지역아동센터(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온누리M센터 1층)는 다문화가정 친구들이 공부하고 생활하는 곳이에요.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등 여러 나라 친구들이 함께 즐겁게 지내는 곳입니다. 다문화가정은 ‘서로 다른 국적이나 인종, 문화를 지닌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을 뜻해요. 부모님 한 분이 외국인이거나 두 분 모두 외국인인 친구들을 ‘다문화가정’이라고 불러요. 쓰는 언어가 다르고, 얼굴 생김새가 달라도 우리 모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의 또 다른 가족 다문화 친구들이 어떤 멋진 그림을 그렸는지 이번 주말 남산으로 구경 갈까요?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성경 QUIZ

출제범위: 예수님이좋아요 11월 25일(시 33:1~8)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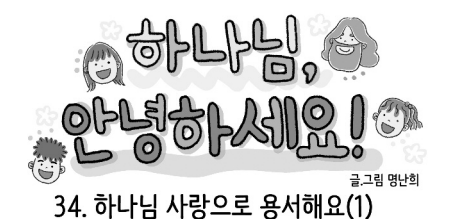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한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온 땅과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찬양하라고 했나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채워보세요.

1)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____, 찬송은 마음
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당연한 것이다(시 33:1).

2) 하프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열 줄 비파로 __
하라. 새 노래로 찬양하고 솜씨를 내 우렁차게
__하라(시 33:2-3).

3)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온 민족들은 그분을 __하라(시 33:8).

정답과 함께 이름, 소속, 연락처를 적어서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34. 하나님 사랑으로 용서해요(1)



우리들 작품

“하나님 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부 김수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 모습을 그렸어요. 하나님께 병을 고쳐주시고, 공부를 잘하게 해주시고, 그림을 잘 그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또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온종일 재미있게 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 김수(사랑부, 18세)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고 싶습니다!”

성민교회 제4대 담임목사 청빙된 이해영 목사

이해영 목사(전 남양주온누리교회 담임)가 서울 서초구 효령로 110(방배역 2번 출구)에 있는 성민교회 제4대 담임목사로 청빙됐다. 지난 11월 13일(주일) 성민교회 제4대 목사 취임예배를 드렸다. 이해영牧사는 2000년부터 온누리교회를 섬겼다. 대학청년부, 광온누리교회, 노스 시카고온누리교회, 성인공동체, 성령수련회, 금요철야예배, 남양주온누리교회 등을 담당했다.

지난 11월 20일(주일) 성민교회 담임목사실에서 이해영 목사를 만났다. 이목사는 “온누리교회는 제 삶에서 영원히 잊을 수 없고, 말로 다 표현 못 할 만큼 감사한 교회”라고 인사했다. 그러면서 “성민교회에서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비전을 완수하는 것으로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이해영 목사와의 일문일답.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온누리교회는 제 마음속에서
영원히 잊을 수 없습니다.
온누리교회와의 영적인 유대관계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제4대 성민교회 담임목사로 청빙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감사하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큼니다. 그동안 온누리교회라는 큰 우산 아래 있었다면 이제는 제가 담임목사로서 성민교회의 우산이 되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힘이 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스스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남양주온누리교회 창립 17주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창 49:22)입니다. 이 비전을 품고 또 다른 세계로 나가자며 새 예배당 건축을 시작했는데, 어느새 저도 새로운 목회로 담을 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지경으로 가게 하는 영적 터닝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담임목사라는 짐이 무겁지만 긴장과 희망이 공존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경솔하지 않으며,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도하심을 따르고자 합니다.”

온누리교회에서는 어떤 사역을 섬겼습니까?

“저는 직장생활 하다가 소명을 받고 뒤늦게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온누리교회는 사역지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곳입니다. 아내와 함께 성도로서 온누리교회의 예배와 영성을 누리고 배우고 싶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다른 교회 차세대 교육 전도사 자리에 지원했는데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떨어졌고, 그 주 온누리신문에 ‘청소년 사역자 5주 훈련과정’이라는 광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경험이 없어서 떨어졌으니 교사로 섬기면서 소중한 경험을 쌓으라’는 뜻으로 결심하고

고등부 교사로 섬겼습니다. 한두 달쯤 뒤에 교회에서 서빙고 청년부를 세우기 위하여 당시 박종렬 전도사님이 강부호 목사님(당시 차세대 담당)께 ‘차세대 교사로 섬기는 신학생 중에서 청년부 사역에 적합한 교역자 후보 한 명을 추천해달라’고 하셨고, 강 목사님이 저를 추천하셨습니다. 당시 박종렬 전도사님을 만나 면접을 보았는데, 직장생활 경험이 있는 것과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은 것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시며 ‘내일부터 함께 합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열매결에 온누리교회 교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23년 동안 광온누리교회, 노스시카고온누리교회, 성인공동체(일산공동체, 서대문공동체), 남양주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등을 섬겼습니다. 순장학교와 장로중보기도모임 등 여러 사역도 섬겼는데, 가장 기억나는 사역은 성령수련회(5년)와 금요철야예배(5년)입니다. 두 사역을 10년 동안 수행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목회의 소중한 영적 자산을 얻었습니다.

저는 애초에 온누리교회를 사역지로 생각지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온누리교회 목회자로 불러주시고, 성민교회 담임목사의 자리로 인도해주셨습니다. 제가 이리저리 쫓아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스스로 일하시며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민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민교회는 1977년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흔들며 깨우던 부흥사 신현균 목사님이 세웠습니다. 그분이 20년 동안 사역하시고, 1998년 그분의 아들 신영준 목사가 2대 담임목사가 되어 약 7년을 섬기셨습니다. 2005년 한홍신

목사가 3대 담임목사가 되어 17년 동안 섬기셨습니다. 1기 성민교회는 성령사역이 강하게 나타나던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2기 성민교회는 문화적 콘텐츠를 접목하면서 열린예배를 개설하고, 제자훈련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3기 성민교회는 1기와 2기의 담임목사님의 사역을 잘 계승하면서 교회 시스템과 사명자 양육을 강조하며 이어온 교회였습니다. 이제 4대 담임목사로 취임하면서 4기 성민교회를 이끌어 가야 할 책임을 맡은 저는 다른 어떤 목표보다 성민교회 시초의 부르심에 집중해야 한다는 명확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재훈 담임목사님께서 수많은 훌륭한 부교역자들 중에서 왜 저를 성민교회 담임목사 후보로 추천하셨는지 깊이 생각해봤습니다. 아마도 故 신현균 목사님의 성령사역에 기초해서 세워진 성민교회 특성을 아시고, 그 사역과 사명을 회복시키고 발전시킬 사람으로서 저를 생각하며 천거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 또한 성민교회를 처음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로 이끌고 싶은 마음이 강합니다.”

앞으로의 비전과 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성민교회는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라는 설립 취지와 목적이 뚜렷하게 선언된 교회입니다. 저는 이 비전을 소중하게 여기며 이 목표에 이바지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는 ‘77민족복음화대성회’(1977년 8월)에서 신현균 목사님이 주창한 슬로건이자 성민교회 개척 비전입니다. 저는 성민교회 시초에 주신 이 비전을 계승 및 발전, 재해석해서 그 목표와 비전을 온전히 이루어 가는 교회로 이끌고 싶습니다.

성민교회 담임목사 청빙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5장 16~17절입니다. 16절은 다윗의 장막을 재건함으로 써 이스라엘의 회복을, 17절은 그렇게 회복된 이스라엘이 남은 자들과 모든 이방인들로 하여금 주를 찾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6절은 ‘민족복음화’, 17절은 ‘세계선교’와 맥을 같이 하는 비전입니다. 이 두 가지 비전을 이뤄 가는 것이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은 저에게 정말 소중하고 감사한 분들입니다. 다시 없을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성숙하고 잘 훈련된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덕분에 23년 동안 사역하면서 정말 즐겁고, 감사했습니다. 귀한 동역자들을 많이 만났고, 그 관계가 지금도 진실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도 큰 감사 제목입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잘 이끌었다기보다 오히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한 목회자를 잘 세워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성민교회 담임목사로 파송시켜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용조 목사님의 불타는 비전에 사로잡혀 왔고, 이제 훈 목사님의 뛰어난 지도력을 따라왔던 저에게 온누리교회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영적 고향입니다. 온누리교회와의 깊은 영적인 유대관계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성민교회가 뻗어갈 소중한 미래의 여정에 온누리교회와 동역하는 복된 연합이 은혜롭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민교회가 계속해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에벤 선교사 아산사회복지재단 아산상 수상

의료선교, 복음전파, 문화 및 교육선교에 앞장

박에벤 선교사(온누리교회 파송)가 지난 11월 17일(목) 아산사회복지재단에서 수여하는 제34회 아산상을 수상했다. 아산상은 아산 정주영 회장(현대그룹 창업자)의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정신을 따라 사회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자, 인류의 건강증진에 기여한 의과학자들을 선정해서 수여하고 있다. 박에벤 선교사는 1998년부터 전 세계 곳곳에서 의료선교 활동하고 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아산상을 수상한 박에벤 선교사는 1998년부터 의료선교를 펼쳐왔다.



결핵 퇴치에 앞장서다!

박에벤 선교사는 병원 밖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보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더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그의 나이 50세에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에서 보건학 공부를 시작했다. 2012년 보건학 공부를 마치고 이번에는 북아프리카로 향했다. 국제보건 의료 비영리단체 '글로벌케어'의 북아프리카 본부장으로 섬기면서 현재까지 결핵 환자 2만 7천 명을 치료했다. 그는 결핵 퇴치사업 외에도 학교 보건, 모성 보건, 교육 및 문화 사업 등의 사업도 계획하고 실천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에는 이웃들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같이 있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작은아들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고 현지인들의 곁을 지켰다.

박에벤 선교사는 의료활동과 동시에 복음 전파에도 헌신하고 있다. 청소년들과 여성들을 위한 의료, 문화, 교육, 자립사업 등을 하면서 복음의 접촉점을 만들고 있다. 6년 전부터는 모로코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자훈련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아프리카 모리타니의 믿음의 형제들을 모로코로 초청해서 제자 양육과 교회 개척을 하고 있다.

박에벤 선교사는 고등학생 시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 싶었다.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에 진학했는데 우연히 아프리카 의료선교사를 알게 되면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었다. 의료 혜택에서 소외된 환자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전공도 일반외과를 선택했다. 인턴으로 근무할 때는 병원비가 없는 환자를 돕고, 전 공의가 돼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사역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마산 신광교회 의료선교팀과 1998년부터 해외 단기선교를 다니면서 본격적인 의료선교를 시작했다.

그곳, 현장으로 향하다!

소련이 붕괴한 이후 아제르바이잔은 전쟁의 화마가 끊이지 않았다. 박에벤 선교사는 아제르바이잔의 난민촌에서 한 청년을 만났다. 그 청년은 박에벤 선교사를 보자마자 "왜 이제야 왔나, 이제 오면 어떡하나"고 절규했다. 박에벤 선교사는 그 청년의 절규를 듣고 이웃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있어줘야겠다고 결심했다. 무엇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선교 계획의 필요성을 깨닫고 오랜 시간 준비했다. 2002년 경상남도 마산에서 운영하던 개인병원을 정리하면서 의료선교사가 될

준비를 본격적으로 했다. 온누리교회에서 복음사역을 위한 준비를 하는 동시에 호주에서 NGO 등 의료봉사활동에 필요한 공부를 이어나갔다. 그리고 2005년, 아프가니스탄 내전으로 인해 많은 이웃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망설임 없이 그곳으로 달려갔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국제선교병원에서 일반외과 과장이자 교육부장으로 섬김을 시작했다. 분쟁지역에서의 활동은 녹록지 않았다. 병원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도 부단히 노력했다. 박에벤 선교사는 단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밤낮없이 치료와 수술을 했다.

간증

모태신앙으로 고등학생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대학 시절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었다. 하지만 바쁜 병원 생활과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신앙생활에 전념하지 못했다. 1997년 어머니가 뇌종양으로 소천하시면서 다시 인생의 의미를 돌아봤다. 어머니가 소천하신 뒤로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기 시작했다.

1997년 마산 신광교회에 출석하면서 좋은 동역자들을 만났다. 교회와 '누가회의 의료선교회'와 함께 베트남, 중국, 몽골, 아제르바이잔 단기선교를 다녔다. 베트남 단기선교를 처음 갔던 그 시간을 잊을 수 없다. 마치 고향에 온 것 같은 편안하면서 가슴 속에서 무엇인가 솟아오르는 열정을 느꼈다. 선교사로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열방을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

다는 막연한 다짐을 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교에 대한 비전을 회복하면서 2001년 의료선교사가 되었다. 당시 아프가니스탄 내전이 한창이었는데, 외과 의사가 필요하다는 선배 선교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곳을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품었다. 2002년 마산의 집과 개인병원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왔다. 온누리교회 두란노바이블칼리지에서 2년 동안 성경공부를 하면서 일대일 제자양육과 다양한 양육프로그램을 수료하면서 복음사역을 위한 준비를 했다. 웹 선교사로 허임되고 3년 6개월 동안 미국과 호주에서 선교학을 포함한 훈련과 교육을 받았다.

2005년 9월 꿈에 그리던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갔다. 4개월 동안 현지 적응을 마치고 카불 국제선교병원에서 일반외과의로 섬기기 시작

하나님이 이끄심과 감사

했다. 화상치료, 복강경수술, 악성 종양 수술에 집중하면서 가정의학과 현지 레지던트, 외과 전문의를 가르치는 프로젝트를 했다. 복음전도도 열심히 했다. 조금씩 사역의 길이 열리는 것 같았는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서 사랑하는 땅, 하나님 약속의 땅을 떠나야만 했다.

2007년 11월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다시 길을 열어주셔서 아프가니스탄 바그람에 있는 한국병원 병원장 신분으로 2009년까지 섬겼다. 2010년 안식년을 보내고 미국 존스 홉킨스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 석사 과정을 마쳤다. 그리고 다시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이번에는 북아프리카로 인도하셨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북아프리카에서 글로벌케어 한국 NGO와 협력해서 의료사역, 문화사역, 복음사

역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세종학당을 포함해서 새로운 교육의 길이 열렸다. 온누리교회 OCC공동체, 뉴원IN2온누리교회와 협력해서 다양한 활동을 개발하려고 한다.

젊을 때 방황하던 인생, 대부분 시간을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았던 30대, 마산에서 신앙생활의 회복과 함께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던 순간, 선교 현장에서의 시간을 돌아보면 감사하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간섭, 인도하심을 느끼면서 매 순간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부족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무엇인가를 하는 선교사의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선교사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한다.

/ 박에벤 선교사

성난 침팬지 같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크리스천 10대 청소년 이해를 위한 신앙적 가이드



김진국 집사
(한강공동체, 고려대
인문예술과정 주임교
수, 심리학자, 의학자)

“그대들의 뇌는 아직 발달이 완료되지 않은 미성숙한 뇌야. 인간으로서의 사고와 품격을 유지하게 해주는 전두엽이 성숙하려면 대개 스물네댓 살은 되어야 하거든. 자네들의 뇌는 배고픈 혹은 성난 침팬지처럼 스스로를 이성적으로 제어하기 힘들다는 말일세.”

내가 대학생들에게 심리학을 가르칠 때 늘 의도적으로 던지는 말이다. 그러면 이 착한 학생들은 그 다음 주 강의 시간에 내가 대뜸 “안녕! 자네들은 무슨 뇌?”라고 하면 “침팬지 뇌요!”하고 이구동성으로 대답해준다. 물론 이 상황은 내가 자신들에 대한 애정으로 충만하다는 것과 이 말이 결코 자신들을 침팬지 수준으로 격하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기에 가능하다.

10대 청소년들의 특징

대학생이 이렇다면 10대 사춘기 학생들은 어떨지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나라 초등학교와 중학생 나이에 해당하는 10대 아이들은 이성적인 판단과 사고를 하도록 관여하는 전두엽의 전전두피질이 전혀 성숙하지 않은 상태이다. 아주 느린 속도로 막 발달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순간을 즐기고, 쾌락을 추구하는 호르몬인 도파민이 왕성하게 분비되면서 그들의 행동을 강하게 충동한다. 그래서 모든 행동이 즉흥적이고 무비판적이다. 세심한 고려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고교생 나이에 접어들면 사정이 나아질까? 한 뇌과학자는 그들을 ‘젊은 야만인’이라고 부른다. 그들 역시 전전두피질이 성숙하려면 아직 멀었다. 신체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발달했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충동성은 여전하다. 미래에 대한 설계도 어설프고, 자기관리도 미비하다. 그런데 이 시기에 테스토스테론이나 에스트로겐 같은 성호르몬 분비는 극적으로 상승한다. 성호르몬의 급격한 변화는 이 시기 청소년들의 경쟁본능을 자극한다. 그들의 경쟁은 기본적으로 또래 집단에서 자신의 상대적인 지위를 높이는 데 집중된다. 이 시기 청소년들은 또래의 동성들에게 돋보이고,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목숨을 건다. 진화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번식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값비싼 신호’를 보낸다고 표현한다.

남자아이들에게 값비싼 신호는 위험한 스포츠(extreme sports)나 모험적인 행동, 알코올 남용, 흡연, 마약 복용 등 무모하고 저돌적인

행동의 남발로 나타난다. 아버지의 스포츠카나 대형 오토바이를 몰래 가지고 나와 도로를 과속으로 질주하다 대형 교통사고를 내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이 시기 여자아이들의 값비싼 신호는 바비 인형처럼 예쁘고 날씬한 몸매로 상징된다. 미래에 아이를 낳고 양육하기 위해 축적되기 시작한 신체의 피하지방은 그들에게 값비싼 신호를 보내는 것을 방해하는 애물단지일 뿐이다. 미래는 아랑곳하지 않고 몸매 유지를 위해 병적인 체중 감소, 심지어는 거식증을 겪는 아이들도 종종 보인다.

또 이 또래 아이들은 독립하려는 욕구가 분출되면서 부모와 사사건건 충돌하는가 하면,

주장이다.

그의 주장에 적합한 인물을 찾다면 백년전쟁 당시 15세기 프랑스의 국민 영웅 잔 다르크를 들 수 있을 것 같다. 조국 프랑스를 위기에 처 구하고 불꽃같은 삶을 살다간 그녀가 영국 군에 잡혀 죽었을 때 불과 19세였다. 신라 시대 대표적인 화랑으로 이름을 남긴 관창도 마찬가지다. 서기 660년 백제와의 전투에서 빛나는 공을 세우고, 계백의 5천 결사대와 싸우다가 전사했을 때 관창의 나이가 불과 16세였다. 하지만 구국의 소년 혹은 소녀 영웅의 존재에 대한 기록은 신화나 전설처럼 남아있을 뿐이다. 희소한 사례 몇 건이 과연 청소년 세대를 상징

해야 한다. UC 샌디에이고 대학교 교수 제이 기드(심리학과)는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열정과 힘은 있는데 브레이크는 없어요. 아마 스물다섯은 돼야 제대로 된 브레이크를 가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대학생도 군제대 후 복학하거나 졸업할 무렵에야 겨우 전두엽 형성이 완성될까 말까다. 하물며 어린 사춘기 중고생이야 오죽할까?

요즘 10대 청소년들은 궁금한 게 있으면 선생님이나 어른들에게 묻지 않는다.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을 해서 몇 초 안에 궁금증을 해소한다. 먹고 싶은 것이나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역시 몇 분 안에 스마트폰 클릭 몇 번으로 해결한다.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시간이 걸리는 지난한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은 어쩌면 황하의 누런 진흙탕물이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것만큼이나 어려울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10대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속도로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시켜야만 한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의 중요성을 말이다.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권자이시지만, 우리가 기대한 대로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도록 설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성숙한 성인 크리스천도 상황에 따라 시험에 들기도 하는 난제 중의 난제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계획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해시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날이 반드시 오늘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힘과 평강을 받아들이 수 있을 만큼 그들이 충분히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을 받아들이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그분이 너를 붙들시고 결코 의인들이 흔들리게 두지 않으실 것이다”(시 55:22).

10대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삶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방황하고 혼돈한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돌보시고, 그들의 문제를 고백하고 말걸 때 양팔을 벌려 환영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극한의 인내심을 갖고, 그들의 브레이크 역할 즉, 대리전두엽 역할을 해야 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이사야 40:31).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브레이크,
‘대리 전두엽’
역할을 해야
한다.”

반대로 또래와는 왕성하게 교류하면서 소속감을 확인한다. 경쟁과 독립, 협력을 통한 소속의 욕구가 다이내믹한 긴장감을 연출하면서 자신들만의 고유한 문화패턴을 만들어 낸다. 켈리 프리먼 크레이그 감독의 영화 ‘지랄발광 17세’나 그레타 거윅 감독의 ‘레이디 버드’ 같은 영화가 이를 잘 묘사하고 있다.

어떤 프랑스 문화인류학자는 “동서양의 문헌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해봤더니 사춘기라는 개념은 없다”는 이색적인 주장을 펼친다. 지금처럼 10대 청소년들이 성인기에 도달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하는데, 고대사회에서는 10대도 똑같이 성인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사춘기의 질풍노도(疾風怒濤)와 같은 혼돈과 방황은 현대에 만들어진 신화와 같다는 게 그의

하는 대표성을 펼 수 있을까? 오늘날 뇌과학이나 신경과학이 밝혀내고 있는 과학적인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닭 한 마리가 울었다고 해서 반드시 새벽이 오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이다.

대리 전두엽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의 청소년들은 근대 이전의 사회보다 훨씬 복잡다단한 환경에서 각종 내적, 외적 스트레스를 겪으면 살아가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갑자기 이성적이고, 무모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뇌과학자 바버라 스토로차의 표현처럼 누군가가 그들의 이성적 사고를 대신할 ‘대리 전두엽’ 역할을

라떼는 말이야

회사 후배의 ‘신앙성장기’

“직장 상사 중에 교회를 다니는 분이 계신데, 그분께 신앙에 대해 나누고, 기도제목을 부탁해도 될까요? 알려주세요, 멘토님!”

타 부서 후배 직원이 우리 부서로 발령이 났다. 그 직원에 대한 평가는 ‘배려가 없다’, ‘인색하다’, ‘협력이 안 된다’ 등 부정적이었다. 그 후배는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는 열심히 잘하는 편이었다. 그런데 상대방을 배려하는 협업은 기존의 평가대로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동료 직원들과 함께 외부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 경우에도 밥이나 커피를 사는 경우가 전혀 없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친한 동료가 생기지 않았다.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그 후배 직원이 “팀장님, 저 한 달 전부터 친구 따라서 교회 나가요. 목사님 설교 말씀과 찬양이 너무 좋아요”라고 말했다. 그 말을 왜 나에게 하냐고 물었더니 “팀장님에게 말하면 교회도, 믿음에 대해서도 잘 알려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 후배 직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을 만니?”라고 물었더니 “잘 모르겠다”면서 내일 점심을 함께 하자고 했다. 다음 날 나는 후배에게 좋은 음식으로 점심을 대접하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8)는 말씀을 시작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 후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그 후배에게 <생명의 삶>을 선물로 주고, 매일 성경을 1장씩 읽기, 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기, 주일예배 꼭 참석하기 등을 조언하면서 정기적으로 교제하기로 약속했다.

어느 날 그 후배가 “팀장님, 임신하도록 기도해주세요”라며 중보기도를 부탁했다. 그는 오랜 시간 임신하기 위해 병원과 여러 미신적인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었다. 나는 사무엘서에 나오는 한나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사무엘서를 묵상하라고 조언했다. 미신적인 방법을 모두 중지하고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해 보라고 했다. 나 역시 중보자로 기도해 주기로

약속했다. 1년 뒤 하나님께서 그 후배 가정에 자녀를 주셨다. 또 그 후배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정말 감사해서 그동안 등한시하던 가정과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고, 헌신적인 사랑으로 시댁과 남편을 섬기게 되었다. 변화된 후배의 모습에 감동한 남편이 함께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던 후배가 지금은 본인이 나가는 교회에서 주일 점심 식사 봉사를 자원해서 섬긴다. 금요일부터 어떤 음식을 해갈지를 고민하고, 좋은 음식으로 성도들을 대접하려 애쓴다. 또 주중예배 모임을 위해서 집을 기꺼이 오픈하고 지체들과 성경공부와 말씀 나눔 시간을 만들어서 교제하고 있다. 남에게 돈 쓰는 것에 인색했던 후배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려운 사람이나 미자립교회, 선교사님을 위해서 본인의 재정을 아낌없이 사용한다. “이제는 돈이 아깝지 않니?”라고 물으면 “전에는 삶이 불안하고 힘들어서 남을 돌아볼 수 없었는데 예수를 주로 영접했더니 이 땅에 사는 삶

이 나그네의 삶이란 것을 깨닫게 되었고, 주어진 물질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과 그 물질을 내 이웃을 위하여 쓰고 싶어졌다”고 고백한다.

사실 나도 처음에는 그 후배가 성가실 정도로 자주 질문하고, 중보기도 요청을 많이 해서 겉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많이 불편했다. 그런 마음이 드는 날에는 어김없이 나의 교만과 형제를 사랑하지 못함을 회개했다. 그 후배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면서 그를 주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그 후배의 물음에 최선을 다해 답해주게 되었다. 지금도 그 후배는 나에게 수시로 말씀과 묵상 메시지를 보내온다. ‘오늘은 또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눠줄까?’ 기대하는 나를 발견한다.



김능자 멘토
(J4U청년부)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서로의 격려자 그리고 위로자!

건장한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운동을 체계적으로 오랫동안 해오면서 멋진 근육질 몸을 가지고 있었다. 에너지 넘치는 삶을 살고 있었다.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건장한 몸을 가진 남자였다. 최소한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보였다. 그런데 그 남자에게는 남들에게 드러내기 힘든 아주 창피하고 고통스러운 고민이 있었다. 다름 아닌 자신의 특정한 내적인 문제가 남자의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어렸을 때 겪었던 사나운 강아지로 인한 트라우마였다. 그 남자가 아주 어렸을 적에 사나운 강아지에게 공격을 받았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그 사건 이후 아무리 작은 강아지라도 그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 어린 시절 경험인데 여전히 남자가 강아지 때문에 몸이 굳고 땀이 나며 두려워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려고 할 때 무척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감정이 차올랐다.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괜찮은 척, 강한 척하면서 살아왔다. 자신의 내면적인 고통과 수치를 잊기 위해 서인지 누구보다 열심히 운동해서 활력 넘치는 근육으로 자신을 덮었다. 근육으로 자신의 강인함을 나타내고자 했다. 하지만 강아지에 대한 공포증은 해결되지 않았다. 성인이 되고 근육으로 자신을 강하게 만들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줄 알았던 공포증이 계속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다. 수치스러웠다. 공포에 짓눌린 자신의 내면을 누가 알 수 있겠는가? 또한 자신의 고통을 나눈다면 누가 긍정적으로 공감할

할 수 있겠는가? 아마도 많은 사람이 농담으로 받아 넘길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상대가 느끼는 생소한 고통을 질질하게 공감하지 않는 것 같다. “뭘 그런 것 가지고 그래!” 정도로 평가절하하는 경향성을 종종 볼 수 있다. 근육질의 남자가 어느 날 용기 내서 상담을 시작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내면의 공포증을 치료받기로 마음 먹은 것이다. 어느 정도 상담이 진행되면서 아요에서 강아지를 만나 보는 적응 훈련을 해보기로 했다. 남자가 잔디

맨이 되어버린다. 물론 이후에 이 남자는 점점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

공포증을 경험하게 하는 대상은 과거나 지금이나 비슷하다. 그런데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이 남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자신의 놀라운 변화이다. 이제는 과거처럼 힘없고 연약한 어린아이가 아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근육과 힘을 가진 성인이 되었다. 과거 고통의 기억을 재경험하게 하는 상황이 현재 종종 자신이 만나는 것과 비슷할지언정 같지는 않다. 과거와 동일

서 두려워한다.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다. 사소한 의견제시도 하지 못한다. 아버지에게 너무 위축된 모습으로 살아간다. 과거 아버지에게 받았던 두려움과 위축된 경험이 성인이 된 지금도 내면을 통제하고 있다. 일상에서 매우 모범적이고 능력을 발휘하면서 잘 살아가는데, 아버지와와의 접촉점에서만 힘없는 어린아이가 된다. 아버지만 만나면 몸과 마음이 위축되었던 그 시절로 돌아가 버린다. 그런데 위축된 남편에게 아내는 좋은 격려자가 될 수 있다. 당신은 예전처럼 어리고 힘없는 아이가 아니며, 충분히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자주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배우자를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면 부부는 서로에게 좋은 치료자, 위로자가 될 수 있다. 부부는 서로 격려하면서 더욱 건강하게 서로의 삶과 인격을 세워가고, 또한 자신의 내면을 세워가는 노력이 필요하다(사 41:10).

나눔: 배우자가 유독 힘들어하는 사람, 대인관계, 상황이 무엇인지 나눠보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어떠한 상황에서도 배우자를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면 부부는 서로에게 좋은 치료자, 위로자가 될 수 있다.”

밭 한쪽에서 걸어오기 시작했다. 반대쪽에서 귀엽고 작은 강아지가 그 남자를 향해서 뛰어가기 시작했다. 강아지가 뛰어 오는 것을 본 순간 그 남자는 과거 겪었던 상황이 재경험되면서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공포에 질린 눈으로 눈물까지 흘렸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남자는 어렸을 때 공격받았던 사건 현장에 머물러 있었다. 그 사건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자리, 그 고통의 기억 속에서 살고 있었다. 그 기억은 고통과 공포 그 자체로 그 남자의 마음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평상시에는 문제없지만, 과거 사건과 비슷한 상황을 접하면 힘을 잃어버린 슈퍼

하게 경험하고 기억할 필요가 없다. 변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다. 여전히 비슷한 상황만 만나면 두려움에 얼어붙어 버리는 그 사람의 내면만 변함이 없었다. 이는 현재를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큰 장애가 된다. 흡사 봄이 찾아와서 꽃이 만발한 큰 동산 가운데에서 여전히 쫄쫄 얼어붙은 겨울왕국을 홀로 살아가는 왕자와 같다.

간혹 결혼 생활 중 배우자에게서 공포증과 같은 반응을 발견하기도 한다. 두려워할 일이 아닌데도 두려워하거나 고통스러워하는 배우자의 모습을 본다. 어떤 남편은 자신의 아버지를 너무 어려워한다. 어려워하는 수준을 넘어

문화해설사가 들려주는 ‘기독교문화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순교자들의 흔적 전북 고창 ‘덕암교회’



전라북도 고창군은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 봄에는 화사한 꽃이 많아 화창(花敞), 여름에는 비가 많아서 우창(雨敞), 가을에는 하늘이 높아 고창(高敞), 겨울에는 눈이 많아서 설창(雪敞)이라 불린다. 볼거리도 많다.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읍성(邑城) 중에서도 원형이 잘 남아있는 모양성, 동백꽃으로 유명한 선운사가 그곳에 있다.

비산비야(非山非野)로 펼쳐진 붉은 황토에서는 온갖 농산물이 풍요롭게 자라고, 선운산 깊은 골로 들어가면 사계절 눈부신 아름다움이 있다. 해안으로 나가면 드넓은 갯벌이 있어 백합조개와 바지락이 풍성하게 잡힌다. 바다와 닿은 인천강에서 잡힌 장어는 풍천장어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들녘에 영겨있는 가시덤불은 달콤한 복분자를 내어준다.

어느 때부터인가 봄이 되면 고창 공음면으

로 관광객이 몰려든다. 학원농장 청보리밭 때문이다. 클래식 선율처럼 높고 낮은 언덕을 따라 보리밭이 펼쳐져 있고, 보리밭 사이로 산책로가 이어진다. 청보리가 익을 때까지 한 달 이상 관광객들이 찾아든다. 이 아름다운 농장에서 자동차 7분 거리에 순교자의 신앙과 뜨거운 눈물이 맺힌 ‘덕암교회’가 있다. 교회는 마을이 아닌 농경지를 바라보는 작은 언덕에 있다. 종을 쳐서 예배 시간을 알리는데 믿지 않는 이들도 고개를 돌려 교회를 쳐다보는 곳에 있다.

덕암교회는 전라도 일대를 담당하며 복음을 전하던 미국 남장로교선교회가 세웠다. 고창 덕암리 주변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처를 세웠는데 그 일을 계기로 교회가 태동했다. 그때가 1900년이였다. 고창군에 세워진 최초의 신앙공동체라고 한다. 일제강점기라는 시련을 신앙으로 견뎌낸 덕암교회는 1950년 공산당이라는 또 다른 시련을 만났다. 일제강점기에 단련된 믿음 때문일까? 공산군의 점령 아래에서도 덕암교회 성도들은 예배와 복음 전도를 멈추지 않았다.

이광년 전도사가 덕암교회에 부임해서 사역하던 중에 전쟁을 만났다. 그는 주일과 수요일에는 예배를 인도하고, 다른 날에는 주변 고을인 영광과 법성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적힌 깃발을 흔들며 다녔다. 1950년 9월 10일에도 늘 하던 대로 “예수 믿으세요. 믿고 천당 갑

시다!”를 외치며 다녔다. 그가 전도하며 다니던 길 앞에 공산군이 나타났다. 공산군은 이광년 전도사를 법성포 대덕산 아래 해수 웅덩이로 끌고 가 무참히 살해하고 던져버렸다. 이광년 전도사는 자신을 살해하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저들을 용서해줄 것을 하나님께 기도했다. 사도행전에서 보았던 스테반의 순교가 그곳에서도 있었다. 공산군은 이광년 전도사의 부인과 8살, 6살 된 두 아들도 이곳으로 끌고 와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다.

김영해 집사 가족은 일찍부터 예수를 믿고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1950년 9월 23일 공산군이 그의 집에 들이닥쳐 온 가족을 잡아들였다. “예수쟁이는 3대를 멸하고 씨를 말려야 한다”면서 민건, 민지, 양건, 온 가족을 덕암리 황산 아래로 끌고 가 죽였다.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정하면 살려 주겠다”는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다. 그때 죽임을 당한 가족이 16명이다.

인천상륙작전으로 공산군이 패배를 거듭하자 그들은 더욱 악랄해졌다. 1950년 10월 19일 오계환 장로, 김순서 장로, 오병길 전도사, 오주환 집사가 몰래 예배를 드리다 발각되었다. 공산군은 가족까지 10명을 잡아들여 인민재판을 하고 잔혹하게 살해했다. 오계환 장로의 아내 김금이 집사가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때 간신히 탈출한 오계환 장로의 아들(당시 15살) 오균열이 훗날 목사가 되었다. 대한예수

교장교회 보수개혁총회 총회장을 역임하면서 순교자들의 믿음을 후세에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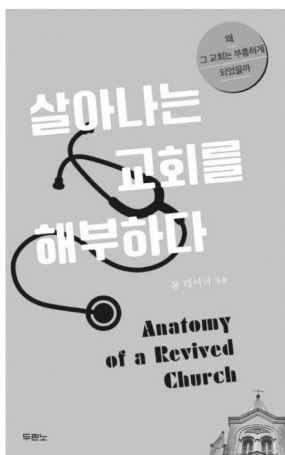
덕암교회 마당에는 교회 종이 전시되어 있다. 1950년 10월 23일 공산군이 교회에 들어와 교회 기물을 파괴하고 종을 떼어갔다. 박안희 성도는 종을 가져간 공산군 앞잡이를 찾아가 “종은 예배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니 돌려 달라”고 부탁했다. 그 이유로 박안희 성도는 처형을 당했다. 종은 저수지에 던져 버렸다. 전쟁이 끝나고 저수지 바닥에서 그 종을 찾았다. 그런데 종 옆에 있어야 할 바퀴가 없었다. 종을 잡아당겨 종을 칠 때 바퀴가 있어야 소리가 난다. 하는 수 없이 새 바퀴를 제작해 걸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종을 ‘ 짹짹 종’이라 불렀다. 이 종이 예배를 알릴 때면 마을 사람들은 순교자의 신앙을 떠올리며 기도했다고 한다. 교회 앞 기념비에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문구가 크게 기록되었다. 기념비 앞에서 잠시 묵상에 잠겼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 내 마음의 처소가 어디인가?’를 고민했다. 덕암교회 순교자들은 눈을 저 높은 곳에 두었기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었다.



임찬웅 집사
(남양주온누리교회, 문화해설사, <강화도(준엄한 배움의 길)> 저자)

두란노 신간

왜 그 교회는 부흥했을까?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
톰 레이너 저 | 두란노 |
13,000원

다. 그 문장을 읽는 것만으로도 독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한다. 각 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소그룹에서 함께 나누면 좋은 질문들을 마련해 두었다. 점점 죽음의 길로 향하는 이 시대 교회들 사이에서 우리 교회가 꼭 살아남기를 원한다면 이 책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저술가이자 교회 연구가 ‘톰 레이너’가 수많은 교회를 진단하고 소생할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톰 레이너가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에 이어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를 펴냈다.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에서는 문을 닫는 수많은 교회 중에서 14개를 부검해서 사인을 밝히고, 소생할 해법을 제안하고 있다.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에서는 많은 교회가 죽어가는 중에도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을 살펴보고 교회가 살아나고 성장하는 이유도 설명한다.

저자는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에서 ‘왜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에 본질적인 답을 준다. 죽어가는 교회들 사이에서 소생하는 교회들이 부흥하는 비결 7가지를 소개한다. ‘인정과 책임’, ‘전통의 함정 벗어나기’, ‘바른 지표 세우기’, ‘강력한 기도’, ‘유독한 교인 제거’, ‘고되고 긴 여정’, ‘새신자 교육’이 바로 그것이다. 교회를 소생시키는 비결 하나를 소개하는 장마다 순종한 교회들의 열매가 기록되어 있

기독교 OTT ‘풍당’ 콘텐츠 소개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부모에게’

대학원대학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입니다’, ‘부모, 자녀 달라도 너무 달라요’, ‘부모,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부모, 당신의 상처를 안아주세요’, ‘부모도 아버지가 필요합니다’를 주제로 강의한다. 채경선 교수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부모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몸은 먹고 쉬고 자면 자라지만, 마음은 사랑받고 이해받고 소속될 때 채워집니다. 여러분은 부모로서 자녀에게 안전한 기지가 되어 주고 있나요? 그리고 나의 안전한 기지가 있나요? 부모가 단단하게 서 있을 때 자녀도 건강하게 세상에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의 삶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부모가 되는데 정작 부모에 대해 배운 적이 없다. 기독교 OTT ‘풍당’ 오리지널 콘텐츠 ‘부모에게’가 부모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준다. 더욱 정확하게 설명하면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준다. 부모라는 부담감과 무게를 조금 내려놓고, 부모라는 은혜를 사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기독교 OTT ‘풍당’ 오리지널 콘텐츠 ‘부모에게’에서는 채경선 교수(성산호

“예수님이 전지적(全知的) 작가”

방송작가 위한 맞춤전도집회 116명 참석, 49명 결신

방송작가를 위한 맞춤전도집회 ‘전지적 작가 시점 THE STORY’ (이하 전지적 작가 시점 THE STORY)가 11월 23일(수) 오후 6시 30분 63빌딩 4층 라벤더홀에서 막 올랐다. ‘당신 인생의 기획 의도를 알려드립니다’를 주제로 이어진 ‘전지적 작가 시점 THE STORY’에는 방송작가 116명(조청자, 대상자)이 참석했고, 49명(이번 기회에 믿기로 32명, ‘세례받겠다’ 17명)이 결신했다.

전지적 작가 시점 THE STORY는 최대웅 작가가 사회를 보고, 영상, 공연(크루스, 송솔나무), 메시지, 결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메시지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전했다. 이목사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적 작가”라면서 “우리 인생의 작가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란



전지적 작가 시점 THE STORY에 참석한 방송작가들이 서로를 껴안고 축복하고 있다.

다”고 축복했다.

최형자 작가(드라마 ‘미우나 고우나’ 공동작가)는 “방송작가들이 한데 모여 정말 기쁘다”면서 오늘을 계기로 방송작가 신우회가 더욱 부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해

정 작가(방송작가신우회 회장)는 “창조 질서와 진리를 전하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미디어가 되도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방송작가 신우회가 되고 싶다”고 고백했다.

/ 정현주 기자

제8회 온누리 선교컨설팅

선교리더십, 선교전문가 100여 명 참석

제8회 온누리 선교컨설팅이 지난 11월 22일(화)과 23일(수) 제주 Acts29 훈련센터(IATC)에서 열렸다. 이번 제8회 온누리 선교컨설팅에는 김홍주 목사(2000선교본부), 엄주연 교수(GMTC), 최형근 교수(서울신학대학교) 등 선교리더십과 선교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했다.

엄주연 교수는 “선교사들의 선행

과 훈련, 파송과 맞춤형 재훈련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최형근 교수는 “제4차 로잔대회를 계기로 온누리교회와 한국 교회가 총체적 선교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자”고 제안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온소미장학회 장학금 수여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 3명에 1,020만 원

온소미장학회(온누리복지재단)에서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 소속 대학생 3명(정마리아, 김요셉, 지안나)에게 장학금 1천2십만 원을 전달했다.

송영범 장로(온누리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어려운 환경에서 꿈을 잃지 않고 노력하는 청소년들을 격려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면서 “꿈꾸는 청소년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온누리복지재단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요셉(가명) 군은 “주신 장학금으로 학업 잘 마쳐서 첨단 시스템 아키텍처 분야를 개척하는 리더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서초C공동체 together THE 함께’

서초C공동체 만남의 잔치 130여 명 참석

서초C공동체가 지난 11월 19일(토) 양재온누리교회 드림홀에서 ‘서초C공동체 together THE 함께’를 주제로 만남의 잔치를 열었다. 순예배나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성도(39명) 등을 포함해 총 130여 명이 참석했다.

서초C공동체 만남의 잔치는 리더십 소개, 특순, 영상편지 상영, 식사

교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도현(‘성령이 오셨네’ 작곡가), 온누리렛 불남성합창단, 테너 박준석 등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손금미 순장(서초C공동체)은 “공동체 리더십들의 따뜻한 섬김 덕분에 만남의 잔치 대상자들이 어색해하지 않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만남의 잔치를 즐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웃들에게 선물을 보내주세요”

2022 엔젤트리 ... 사연 뽑고 선물 발송

이웃들에게 연말 선물을 보내주는 ‘2022 엔젤트리’ 열기가 뜨겁다. 자녀들의 손을 잡고 엔젤트리 사연을 뽑는 부모, 가족 수만큼 엔젤트리 사연을 뽑아가는 성도 등이 그 주인공들이다.

이창권 성도(중종로공동체)는 “자녀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들과 나눌 수 있어 감사하다”고 엔젤트리 참여 소감을 밝혔다. 김현주 장로(사회선교본부)는 “엔젤트리가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이웃을 더욱 살뜰히 살피는 계기가 되고 있다”면서 “이웃에게 선물을 보내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자가 되어달라”고 권면했다.

2022 엔젤트리 사연은 온누리교회 국내 캠퍼스 로비에 설치된 ‘엔젤트리 게시판’에서 뽑으면 된다. 사연을 뽑은 다음 후원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서 엔젤함에 넣으면 된다. 사회선교부에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 엔젤트리 대상자의 주소를 확인하고, 일주일 안에 선물을 발송하면 된다. 선물발송을 완료한 성도들은 각 캠퍼스 엔젤트리폰에 이웃에게 선물을 발송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된다.

/ 김영선 기자

하나님의 선교를 배우다!

대전온누리교회 ‘선교 비저너리링’

대전온누리교회가 지난 11월 23일(수)부터 25일(금)까지 선교 영성 회복을 위한 선교 비저너리링 ‘하나님의 선교’를 대전온누리교회 본당과 세종교육관 본당, 대전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개최했다.

선교 비저너리링 ‘하나님의 선교’에서는 노규석 목사(온누리M센터 담당)가 23일(수) ‘나의 가는 길’, 24일(목) ‘예수와 사마리아’, 25일(금)

‘나를 찾아오신 작은 예수님’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노목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성명식 성도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것”이라고 다짐했고, 현경화 성도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살피면서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했다.

/ 홍하영 기자

CCF 전도집회, The 멋진 당신 ‘The Next’

12월 4일 용산 드래곤시티호텔 그랜드볼룸홀

CCF(Christian CEO Forum)가 주최하는 CEO 맞춤전도집회 ‘The 멋진 당신’ 콘서트가 3년 만에 열린다. 12월 4일(주일) 오후 5시 용산 드래곤시티호텔 3층 그랜드볼룸홀에서 ‘The Next’를 주제로 막 오른다.

The 멋진 당신 ‘The Next’ 콘서

트에서는 게리 하우젠(국제정의선교회 설립, 대표)이 강연하고, 류승주(뮤지컬 가수), 범키(가수), 크루스(남성 가스펠 중창 그룹)가 게스트로 출연할 예정이다.

문의: 010-9587-9224

/ 정현주 기자

수요여성전도축제 ‘엄마의 여행’

11월 30일 오전 10시 30분 본당

엄마들을 위한 전도축제가 열린다. 11월 30일(수) 오전 10시 30분 수원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수요여성전도축제 ‘엄마의 여행’이 막 오른다. 수요여성전도축제 ‘엄마의 여행’의 주인공은 엄마다. 자녀에게 무엇을 내줘도 아깝지 않은 엄마들에게

자녀들이 가장 귀한 ‘복음’을 선물한다. 김현실 목사(수원온누리교회)가 ‘나는 길ियो 진리요 생명이니’(요 14:6)를 주제로 설교하고, 백진주 교수(바이올리니스트) 등의 특순이 이어진다. 회비는 1만 원.

문의: 031-895-6500

하나님 만나고, 사랑을 배우고!

대학청년부 연애·결혼 코칭세미나 ‘청춘클래스 3기’ (이하 청춘클래스)가 지난 11월 19일(토) 막을 내렸다. 연애와 결혼에 대해 고민하고 기도하는 청년 90명(남 45명, 여 45명)이 참석했다. 이번 청춘클래스에서는 두 차례 오프라인 특강과 오프라

인 및 온라인 조별 만남이 이어졌다. 조혜은 자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애와 결혼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배우자를 만나고 싶다”고 밝혔고, 이기세 형제는 “크리스천의 연애와 결혼에 대해 현실적인 고민을 나눌 수 있어 감사했다”고 말했다.

말씀 해설 요청 및 기도제목 모집

온누리신문에서 ‘말씀과 기도’ 지면에 게재할 말씀 해설 요청 및 기도제목을 모집한다. 이메일(hha0@onnuri.org)을 보낼 때는 ‘이름, 소속, 공동체, 연락처’를 함께 보내야 한다.

문의: 02-6959-0001

■ 권사 임직 간증



/ 최현주 권사(도곡공동체)

긴장했던 임직자스쿨 8주 동안의 수업을 모두 마치고 과제물을 제출했다. 한시름 놓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되돌아 보니 선물처럼 귀한 시간을 통해 주신 임직의 축복을 깊이 깨달았다.

모든 강의와 간증도 좋았지만, 독서로 목사님들의 신앙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이 큰 은혜였다. 형식적인 교회에서 탈피해서 생기와 기쁨이 넘치고, 능력과 기적이 역사하며, 사랑과 은혜의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루기 위한 큰 그림이 **故 하용조 목사님의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에 자세하게 나와 있었다. 놀라운 것은 **故 하용조 목사님이 온누리교회 초창기에 계획하신 목회철학과 사역들이 빠짐없이 전수되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재훈 담임목사님의 **<선한 그리스도인을 찾습니다>**에서는 ‘악한 세상에서 선하게 사는 것이 곧 성공’이라는 말씀이 와닿았다. 그리고 ‘누가 내 이웃인가?’라는 자기중심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를 버리고 ‘누가 그의 이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말씀도 깊이 와닿았다. 또 스스로 신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중매하는

임직의 축복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말씀에서 그동안 전도보다 나의 믿음과 행실이 온전해지려 했던 모습을 회개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물리라>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경험과 짧은 식견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계시한 대로 믿고 받아들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그분의 능력에 한계가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도 온전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분의 돌보심을 의심하는 소극적 무신론이 자신의 경험에 갇힌 불신앙이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 잘못 알거나 막연하게 의심하던 것들이 분명해져서 앞으로 신앙생활에 큰 이정표가 될 것 같다.

새벽기도와 큐티를 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도 있었다.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의 소중함을 알았다면,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배웠다. 때로 현실이 낙심하게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맡겨주신 일들을 묵묵히 해낸다면 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행통한 자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부족한 나를 기뻐하셔서 귀한 직분을 주시고, 아름답게 세워주실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한다.

■ 남자 안수집사 임직 간증



/ 최재영 집사(서빙고공동체)

나는 믿지 않은 집안에서 태어났다. 교회에 첫발을 내디딘 것은 중학교 때다. 겨자씨만큼 작았던 믿음이 생명을 갖고 성장의 꿈틀거림을 시작한 것은 결혼하면서부터다. 하루아침에 한 지붕 아래 ‘주일은 교회가 날’로 여기는 사람이 생겼다. 그때부터 나의 주일예배 출석률이 믿기 어려울 만큼 변했다. 하나님 곁에 머물게 해준 아내에게 고맙다.

우리 가정은 해외에서 주재원 생활을 오래 했다. 해외에서 소규모 한인교회와 현지교회를 주로 다녔다. 성도 모두가 교회 일을 도와야 하는 상황에서 값진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배움의 기회가 부족하고, 믿음의 멘토와 모델이 없는 아쉬움이 있었다. 그 무렵 아내가 CGNTV를 알게 됐다. 언제부턴가 아내는 하용조 목사님의 말씀 시리즈를 듣고 있었다. 나도 옆에서 같이 말씀을 듣다가 나중에는 출퇴근길 차 안에서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온누리교회와 우리 가정의 인연이 시작됐다.

2016년, 정든 회사를 은퇴하고 해외 생활을 정리하고 싶었다. 아내가 흔자 내세시는 장모님 댁 근처가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온누리교회를 다녀보지

하나님의 알람(alarm)

않겠냐고 했다. 온누리교회에서 믿음생활 하면서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지 이해할 수 있었다. 지난 5년 동안의 믿음 생활은 한마디로 행복한 5년이였다. 우선 섬김의 모습에서 주님을 느끼게 하는 목회자들이 인상 깊다. 만남의 잔치에서 목회자들이 새신자들을 환영하며 합창하셨던 모습이 지금도 감동으로 남아있다. 또 성도와의 나눔과 교제가 풍성한 순과 공동체도 행복이었다. 공동체 장로님들을 통해 볼 수 있는 섬김과 믿음의 본은 좋은 자랑분이었다. 기독 OTT ‘풍당’을 통해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양질의 강의와 다양한 콘텐츠들이 많아졌다.

그 은혜로운 환경에서의 나의 믿음은 어떠한지, 무엇을 했는지 돌아켜 봤다. 안수집사로의 부르심이 타성과 게으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알람(alarm)이라 생각한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시며, 꾸짖음 대신 부끄러움으로 깨우치게 하셨다. 늘 사랑으로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몸둘 바 모를 정도로 감사하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새롭게 가듬는다.

■ 여자 안수집사 임직 간증



/ 김정아 집사(수원온누리교회)

아주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했다.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거의 교회에서 자라다시피 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보다 신앙생활은 나의 생활이자 일상이었다. 평온한 일상은 내가 하나님을 찾을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 평안함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인지 알지 못했다. 그 평안이 깨지고 고난이 찾아오니까 그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다. 아이를 품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 무렵 전주에 살고 있었는데, 비전대학교에서 3월 동안 성경공부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문봉주 장로님께서 강의 해주셨다. 하나님의 만지심과 역사하심을 그 자리에서 경험했다. 당시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셨던 문봉주 장로님을 통해서 온누리교회를 알게 되었다. 온누리교회에 갈 수는 없었지만, 인터넷으로 하용조 목사님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보며 예배를 드렸다. 몇 개월 말씀을 들으면서 멋진 비전을 가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생

나도 그들처럼...

각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남편의 이직으로 분당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이사 온 지 2년 만에 온누리교회 등록교인이 되었다. 그동안에도 수요일여성예배 등에 참석하면서 온누리교회를 경험했는데, 들어와 보니 정말 달랐다. 말씀의 깊이와 공동체의 연합, 성도 간의 교제가 완벽한 교회였다.

임직자스쿨을 수료하면서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해 섬기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였다. 임직자스쿨과 더불어 수원온누리교회 성경통독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났다. 바울서신을 읽고 배우면서 바울서신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게 되었다. 바울을 도와서 작은 일을 신실함으로 감당했던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다. 나도 그들처럼 되고 싶었다.

안수집사 임직을 받으며 어떤 직분자가 되어야 할지 생각했다. 바울과 같은 대단한 사도는 되지 못해도, 바울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었던 짐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졌다. 드러나지 않아도 묵묵히 자신의 길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

■ 여자 안수집사 임직 간증



/ 나금란 집사(부천온누리교회)

나는 부천온누리교회에 2005년 처음 출석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2007년부터 유치부 교사, 2010년부터는 수요일여성예배 찬양팀에서 섬기고 있다. 내가 찬양팀을 섬기기까지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이 있었다. 하나님은 늘 내게 말씀하시고, 섬김의 자리로 이끌어주셨다. 최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온전한 순종을 시험하시고, 확인하시고, 기대하지 못한 선물을 주셨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를 경험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선택하였으니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던 첫 부르심의 음성을 나의 의가 드러날 때마다 기억하게 하신다. 임직을 받으며 하루하루 새로운 경험을 했다. 10주 동안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온누리교회의 비전과 바라보는 나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있음을 발견했다.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다짐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기도를 올려 드린다.

“하나님으로만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믿음이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한순간도 눈을 돌리시지 않으시며, 나를 주목하시는 주님의 관점으로 세

하나님 은혜와 나의 다짐

상을 바라보게 하소서. 갈렙과 같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두고, 내 힘으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소서.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나의 자아를 더욱 죽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편한 종이 되게 하소서. 말씀 안에서 내가 더욱 다듬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 영원히 하나님만 자랑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제게 약속하셨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그의 뿌리에서 가지가 돋아나 열매를 맺을 것이다”(사 11:1)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너를 다르게 이끌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잘려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오고, 가지가 돌아 열매 맺게 하시겠다는 소망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참 진리이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편지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장로칼럼

러브소나타와 여리고성

장정열 장로
(관천의왕공동체)

미야자키 러브소나타는 내 마음에 많은 여운과 의미를 남겼다. 미야자키 지역이 영적으로 피폐한 곳이고, 러브소나타 집회가 힘들게 준비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1983년부터 2년 동안 장기연수를 받았던 일본 ‘천리(天理)시’가 떠올랐다. 천리시는 천리교도들의 본거지가 확장되면서 도시가 된 곳이었다. 그곳의 분위기를 알기에 미야자키의 실상이 궁금했다. 무엇보다 하용조 목사님의 “일본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일본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습니다”라던 외침이 메아리가 아닌 가슴을 파고드는 비수처럼 느껴졌다.

러브소나타 전야제인 가스펠나이트를 마치고 참석자들을 환송하면서 축복했다. 가스펠나이트에 참석한 팀 대부분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비신자들이고, 취미생활로 음악을 한다는 선교사님의 설명을 듣고 그들을 사용할 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했다. 가스펠나이트 집회를 보면서 머지않아 일본 교회가 러브소나타 행사를 자발적으로 연합해 개최할 날이 곧 오기를 기도했다.

러브소나타 집회는 리허설이 길어질 만큼 열성을 다해 준비했다. 이재훈 담임목사님의 메시지는 ‘선물의 사랑과 필요의 사랑’이었다. 미야자키는 풍광이 수려하고, 농축산물이 풍부해서 남부럽지 않던 지역이었는데, 이제는 일본에서 손꼽히는 열악한 지역으로 전락한 상황으로 인해서 자살률과 이혼율이 높은 지역에 선물처럼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울려 퍼지기를 소망한다는 메시지였다.

결신의 시간에 유심히 살펴봤더니 초청자 모두 매우 진지하게 카드를 작성했다. 참석자 25% 정도가 결신했다. 일본 사람들은 마음을 드러내기까지 오래 걸리지만, 일단 마음을 나 타낸 이상 잘 바꾸지 않는 특성이 있다. 이번 러브소나타에서 결신한 이들을 잘 양육하는 후속 프로그램이 중요할 것 같다.

러브소나타 행사를 마친 다음 날에는 ‘Love Church’를 탐방했다. 일본인 최초 해외파견 선교사이자 한국 최초의 일본인 선교사였으며, 수원을 중심으로 많은 영적 결실을 남겼던 노리마츠(乗松)선교사의 영향을 받은 가문(손자의 아내)에서 목회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우리 팀원 모두가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중보기도 했다. 일본의 많은 목회자들이 늦게 신학공부를 하고, 후임자가 없어서 무목교회로 버티다가 할 수 없이 문을 닫는 게 일본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러브소나타 기간 동안 <생명의 삶> QT 말씀이 요셉과 형제들이 극적으로 외나무다리에서 만나 용서하고 화해하는 내용이었다.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목상하게 하셨다. 가해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실들을 쉽게 잊어버리지만, 피해자는 오랜 세월 잘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남는다. 피해자 요셉이 먼저 손 내밀고 용서하고 화해했듯이, 32번 러브소나타를 통해서 일본 열도 곳곳에 뿌려진 변하지 않는 진정한 사랑이 저들의 심령을 녹여 화해로 이어질 것이다. 그날을 기대한다.

여호수아 6장에서 견고한 여리고성을 매일 한 번씩 6일을 돌고, 7일째는 7번을 돌라고 하신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머지않아 일본 땅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고 영적으로 회복되어 가깝고도 가까운 이웃 나라로 우리와 함께 할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본다. 내 마음은 이미 다음 러브소나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권사칼럼

일대일제자양육의 기적

박준기 권사
(일본어예배부)

지난 11월 6일 일본 고베 홀리차펠과 11월 7일 구마모토 벤엘교회에서 일대일제자양육 수료식이 있었다. 이번 일대일제자양육 수료식은 수료자들과 양육자들의 눈물과 감동이 넘치는 은혜의 자리였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자리였다.

지난해 말 일본 고베와 구마모토에 있는 교회에서 일대일제자양육을 요청했다. 온누리교회 일본어예배부에 고베(홀리차펠)에서 4명, 구마모토 3개 교회(키야마교회, 기보가오카교회, 벤엘교회)에서 12명이 일대일제자양육을 신청했다는 연락이 왔다. 일본어예배부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회에 걸쳐 ‘글로벌 일대일제자양육 과정’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총 67명의 수료생이 나왔고, 모두 건실한 양육자가 되었다. 그 양육자들이 이번 일대일제자양육을 진행했다.

이번 일대일제자양육을 진행한 양육자들은 모두 일본어가 가능하고, 이미 동반자 3명 이상과 일대일제자양육을 한 베테랑들이다. 그럼에도 외국어인 일본어를 사용해야 하고, 문화가 다른 일본인이 대상이기 때문에 일대일제자양육 과정 중에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없도록 올해 1월부터 양육 방법과 언어 등의 실습시간을 가졌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일대일제자양육이었기에 온라인(Zoom, Line 등) 사용방법 등도 훈련받았다.

고베와 구마모토의 일대일제자양육은 올해 3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약 8개월 동안 진행되었다. 고베 수료식에서는 동반자들이 일대일제자양육을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표현하는

감사영상을 준비해서 양육자들을 감동시켰다. 구마모토에서는 11명의 동반자가 수료했는데, 양육자와 동반자가 함께 올려드리는 감사 찬송이 마음을 뜨겁게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6명의 양육자가 구마모토에 직접 가서 수료를 축복해 줄 수 있어서 더할 수 없는 기쁨이었다. 구마모토에서 일대일제자양육을 한 양육자는 동반자가 둘째를 출산했는데 산후 뒷바라지를 며칠이라도 해주고 싶다고 동반자의 집으로 달려갔다. 맛있는 음식과 아이 돌보기, 이불 빨래 등을 기쁘게 섬겼는데, 그 모습에 감동한 동반자가 “양육자님이 천국의 천사와 같았다”고 간증했다. 우울증이 심해져 사람 얼굴도 쳐다보지 않던 고베의 한 동반자는 자신의 소망을 “편하게 죽는 것”이라고 했었다. 그런데 그 동반자가 일대일제자양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했다. 그 동반자는 “이 세상에서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품 안에 영원히 안기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양육자들의 헌신적인 사랑이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영혼을 변화시키고, 새 생명을 낳았다. 고베의 다카하시 목사님도 “일대일제자양육이 기적을 만들어 냈다”고 고백했다. 고베와 구마모토에서의 일대일제자양육은 동반자와 양육자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체험하고, 성장하는 귀하고 값진 시간이었다.

일대일제자양육을 마친 일본 성도들이 동반자 과정을 수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양육자과정도 수료하고 싶어 했다. 그들을 대상으로 12월부터 우에다온누리교회 하카마타 미키 목사님이 양육자 과정을 맡아주실 예정이다. 그들이 각자의 교회에서 성도들과 일대일제자양육을 하면서 일본 교회에서 재생산이 일어나기를 소망한다. 일본 교회와 일본의 영혼들이 부흥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높여 드린다.

신앙에세이

김윤식 목사
(서초D공동체)

몇 년 전 새우 수천 마리가 물 밖으로 나와 줄지어 바위 위로 걸어가는 영상이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물속에서 헤엄치는 새우가 물 밖으로 이동하는 이 생경한 광경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매우 놀랐다.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열광한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도 불가능해 보이는 여정을 가능하게 하는 신비한 이유에 대한 호기심 아닐까?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동물들의 신비한 생태는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기도 했다. 어떤 가수는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흰찬 연어들을 주제로 노래했고, 어떤 가수는 민물장어의 꿈을 상상하며 노래했다. ‘대

체 저 생물은 무엇을 얻기 위해 저렇게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것인가?’ 이해할 수 없는 동물들의 본능이 열정에 목마른 사람들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곤 한다.

방송에서 서바이벌 경연 프로그램이 수년 동안 비슷한 포맷으로 반복해서 나오는데도 여전히 많은 이에게 사랑받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생각한다. 누군가의 절실하고 간절한 열정과 도전을 생동감 있게 지켜보고, 문자메시지 투표에 참여하는 것에 많은 사람이 기쁨을 느낀다. 사람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과 희생하는 헌신에 찬사를 보낸다. 우리 마음에 더욱 가치 있고, 위대한 것을 향한 갈망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지만, 안정적인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사자는 많은 동물을 죽일 힘을 갖고 있지만, 허기를 채우면 사냥하지 않는다. 동물들은 본능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으로 만족한다. 그러나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배부르고 평안해도 부족함을 느낀

다. 그래서 타인의 열정과 헌신, 동물의 행동에 열광하는 것 같다. 우리가 그렇게 가슴 벅찬 일을 하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에게는 모험에 대한 욕구가 있다. 하지만 원한다고 해서 모두가 모험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 또한 인간이 동물과 다른 부분이다. 원해도 하지 않는다. 치러야 하는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는 모험 욕구를 잠잠하게 하는 안정 욕구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 밖을 걷는 새우를 보면서,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서, 다른 이의 도전기를 들으면서 적당히 만족한다. 우리 안의 모험 욕구와 안정 욕구가 함께 충족될 수는 없는 것일까? 나의 삶을 지켜내면서 동시에 가슴 뛰는 위대한 일에 참여할 수는 없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해 바울은 우리의 갈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그것은 바로 삶의 목적지를 인식하며 오늘을 사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바울은 우리의 현실을 장

막에 비유했다. 바울이 보기에 우리의 삶은 장막에 머무는 것과 같다. 장막은 임시 거주 공간이다. 그래서 장막은 불편하다. 수명도 짧다. 영원히 장막에 거할 수는 없다. 장막이 때를 다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가? 그때는 우리를 위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장막에 살면서 영원한 하늘의 집을 사모하는 자들이다. 성령님께서 이를 보증해 주시기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 있다. 그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로 14:8)임을 믿고, 무엇을 하든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고전 10:31) 행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끝이 무엇인지 미리 알려 주셨다. 언젠가 장막을 벗고 하늘의 영원한 처소에 거하는 것을 믿는다면 현실에 지배되지 않고, 정차 맞이하게 될 마지막의 눈으로 오늘을 볼 수 있게 된다. 영원의 관점으로 오늘을 살게 되는 것이다. 주님이 주신 소망으로 오늘을 새롭게 하기를 기도한다.

영원의 관점으로 오늘을 산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손 내미시는 하나님

승리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을 기억하는 경기입니다. BC. 490년 그리스 군대가 페르시아 군대와 싸워서 승리를 거두었다는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전투가 벌어졌던 마라톤이라는 지역에서 아테네까지 수십 킬로미터를 달려와 “우리가 이겼습니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그 병사가 탈진해서 죽었습니다. 그 죽은 병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마라톤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탈진하고, 목숨을 잃어버리면서도 그 소식을 전했던 병사를 기억하는 경기입니다. 이것을 적용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고, 세상에 구원이 임했다는 승리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마라톤에 참여하는 선수입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보냄 받은 선교사들이 복음의 마라톤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CGNTV 후원행사에서 태국 CGNTV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선교사의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해 141명이 태국 CGNTV에 전화를 걸어서 “예수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해서 직원들이 결신을 시켰다고 합니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문을 두드렸는데 결신한 사람들이 141명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11월 18일까지 결신자가 370명이라고 합니다. CGNTV를 보고 스스로 전화를 걸어서 “내가 예수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묻고 찾아온 사람 가운데 결신한 사람들입니다. 결신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CGNTV 직원들이 결신을 시키고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받지 못한 것은 전적인 인간의 책임

복음이 전해지지만 모든 사람이 믿고 순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전파되는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이 이루어지는데 왜 동족 이스라엘은 불신앙 가운데 있는가?”라는 질문이 계속 이어집니다.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첫째, “그들이 듣지 못했는가?”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 달려있는데, 그들이 듣지 못했는가?”라는 질문을 당연히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시편 19편 4절을 인용합니다. “

그들이 음성이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음성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불신앙의 원인은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들어도 믿지 않는 완악함이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유대인들입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들려졌어도 완악함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현상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더러는 돌밭에, 더러는 가시덤불에, 더러는 좋은 밭에 떨어졌습니다. 네 개의 밭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길가 같은 마음으로, 어떤 사람은 돌밭으로,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 어떤 사람은 좋은 밭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 죽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 안에 좋은 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돌밭도 있고, 길가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역에서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데, 어떤 영역에서는 돌밭 같고, 가시덤불 같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돌밭, 길가, 가시덤불을 끊임없이 살피고, 묵은 땅을 기경하고,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의 단단한 마음을 부숴야 합니다. 끝까지 말씀의 역사를 거부하는 완고한 마음의 땅도 있습니다. 마귀의 강력한 지배를 받고, 죄가 말씀의 씨앗을 거부하는 마음입니다. 불신앙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죄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의지적으로 죄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서 믿지 못했다는 변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둘째, “그들이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는가?” 이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방인보다 많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불신앙의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는 자기 의, 인간 죄악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하게 하고 내가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분노하게 할 것이다”(19절).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됨으로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하게 하신다는 맥

락입니다.

“또 이사야가 아주 담대하게 말하기를 ‘나를 찾지 않는 자들을 내가 만나 주고 내게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관해서는 ‘내가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라고 했습니다”(20~21절).

‘나를 찾지 않는 자들’은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찾을 마음도 없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는데, 수없이 많은 계시와 기적과 표적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고 했습니다. ‘온종일’은 하루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손 내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진노와 심판 앞에 처해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이들을 붙잡기 위해 손 내미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손을 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구원의 손을 잡지 않고 있는 인간의 완악함을 성경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택하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보여 주셨음에도 완악함으로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인간의 책임입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손을 계속 내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이들에게도 그 손이 계속 펼쳐져 있습니다. 언제 그 손이 거두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지 않고 태어나는 영혼은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에 처하기로 작정되고 태어난 영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에게 구원의 손을 내미십니다.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받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책임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전파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에 헌신하고, 후원할 때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일에 더욱 헌신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두란노해외선교회(TIM) 창립 30주년 기념 ‘선교순회 칼럼’

다음세대를 세우자!!!

“마이(Mai)야, 저기 사거리에 큰 사고가 났어. 그런데 누워 있는 사람이 뚝(Tung) 목사 같아. 내가 지금 급하게 일하러 가야 하니 마이가 뚝 목사에게 전화 좀 걸어봐!”

2019년 8월, 하노이 어느 여름 날, 지난 차세대 사역 여름성경학교 어드벤처 스태프이자 TBC 학교 졸업생인 투이(Thuy) 자매로부터 걸려온 전화 한 통...

우연히 사고현장을 지나가던 자매가 뚝 목사가 사고를 당하는 것을 본 전화였고, 전화를 받고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뚝 목사는 왼쪽 날개뼈가 파열된 상태로 의식이 없었고, 호흡이 돌아오지 않아 며칠을 집중치료실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차세대 여름성경학교 스태프가 부족한 상황을 걱정하기에 앞서 뚝 목사의 건강이 제일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사역 여름성경학교 어드벤처 ‘모세! 세 가지 선물’ 연습이 시작되는 9월이 되었고, 4명의 스태프가 이

사역을 감당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입원 중인 뚝 목사에게서 병원에서라도 연습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뚝 목사의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놀랍게 호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2020년이 되었고, 어드벤처 여름성경학교 어린이 캠프를 위한 전국투어 교사강습회를 잘 감당하게 되었고, 투어 과정 중에 올라가지 않던 왼쪽 팔이 자유자재로 올라가는 주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뚝 목사는 생계를 위해 큰 마트 매니저라는 직업도 있었지만, 차세대를 세우는 사역에 헌신하기로 마음을 먹고 직장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차세대를 위한 사역에 헌신했습니다. 2020년 투어 이후 주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뚝 목사는 차세대사역을 더욱 소중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은혜를 경험했던 뚝 목사는 2022년 다시 차세대사역 ‘씨앗-하나님 시선에서 바라본 창조과학’ 주제의 어드벤처 사역에 다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었지만, 2021년 하반기 4명의 스태프가 온 힘을 다해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난 1월 뚝 목사 아내의 출산일을 며칠 남기지 않고, 온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이라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 아내 혼자 출산을 위해 병원을 갔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뚝 목사는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참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출산하는 과정 가운데 주께서 많은 위로를 주셨습니다.”

뚝 목사의 예쁜 딸 ‘티엔 트’(하늘의 편지)를 바로 안지도 못하고, 사진도 찍을 수 없었지만, 주께서 하락하심에 감사하며 더욱 그 가정이 믿음이 견고해지는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통해 다음세대를 바라보는 눈과 가정을 위한 사역이 절실함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동남아시아 A국, 그것도 북부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기

에 이 친구들이 다음세대를 바라보며 리더를 세우기 위해 자기 것들, 주위의 압박, 가족의 회생과 생계와도 직결된 직장을 포기하며 이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년 스태프가 줄고 있고, 부족하고, 헌신 페이지 지원하는 지체들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주께서는 조금씩 조금씩 견게 하시고, 이 일을 완주하게 하십니다. 주께서는 가장 부족한 이 시기에 여름성경학교를 뛰어넘어 주일학교 프로그램 열게 하였고, 어린이 일대일 제자 양육을 꿈꾸게 하셨습니다. 두 목사의 나눔입니다.

“예전에는 사람도 많고, 한국 선생님도 많고, 잘하는 것도 많았다. 그렇지만, 지금은 사람도 정말 없고, 부족한 것뿐이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사역을 계속하게 하신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우리를 사용하신다.”

앞으로도 어떠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될지 기대하게 됩니다.

/ 권태일 선교사(동남아시아 A국)

서빙고 O2. 793. 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3부 오후 1:00 본당 4부 오후 3: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비전홀 3부 오전 11:30 본당, 비전홀, 두란노홀 4부 오후 1:50 본당, 비전홀 5부 오후 4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7부 오후 9시 본당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0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2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열방예배 매주 목요일 오후 7:20 두란노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오은규 목사 문의: 윤신혁 전도사(010-3113-5041)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김우용 대표(010-5395-2319)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수 팀장(010-7303-1603) 아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7:30~8:50(Zoom) 문의: 김인옥 팀장(010-7184-3060) 문화 미디어 증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을 문의: 이강현 팀장(010-5594-9206)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0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14:00 선교관 101호 / 러시아어 13:00 선교관 301호 / 네팔어 주일 14:00 선교관 202호, 매월 첫주 군포 셀터 /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 / 페르시아어 주일 11:00 Acts29 Hall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00 Peace 303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따갈록어 주일 13:30 Onnuri Hall / 태국어 주일 14:00 Manna hall / 스리랑카어 주일 11:0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Peace 301 / 중국어 청년 주일 12:30 Manna hall, 다문화 꿈땅 주일 11:00 Startree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1:00 Peace 305 / 다문화 예꿈 주일 11:00, 14:00 Dream Kids / 다문화 대청 주일 12:00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6:00 스타트리협동조합 / 우즈베크스탄어 주일 14:00 Peace 304 / 아랍어 11:00 Library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5007-3616) 캄보디아어 주일 11:00 703호 / 러시아어 14:00 703호 / 미얀마어 14:00 706호 / 파워웨이브 14:00 705호 / 꿈땅 11:00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예배 주일 11:00 301호 / 네팔어 11:00 2센터 2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열방예배 13:30 4층 OGA / 몽골어 주일 11:00 Love Hall / 페르시아어 15:00 Love Hall / 베트남어 13:30 4층 OGA 차세대 11:00 차세대예배실 / 열방청년예배 13:30 4층 OGA 남양주M센터(010-3937-3927) 열방예배(한국어) 주일 09:30 301호 / 힌디어 토요일 19:30 301호 / 네팔어 주일 15:00 301호 / 차세대 11:00 302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집사(010-2539-5665) 나지원 팀장(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목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10:30~12:0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서빙고(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울 운행 시안채플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 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B102 문의: 이희인 집사(010-3706-5974)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쪽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주일 오전 11시 30분 ISB서울빌딩 2층(용산구 한강대로 363-2) 문의: 010-8964-5275 CMN 서울역노숙인 진로팀 모임 일시: 매달 셋째 주 목요일 오후 6:30~8:00 장소: 서울역 서부역교차로 사점출은전구 들 예배당 문의: 윤상엽 팀장(010-9439-1180) 안산온누리M센터 단기 봉사자 모집 내용: 미술전시회 작품 보호 및 안내 장소: 서울 남산도서관 1층 남산갤러리(용산구 소월로 109) 일시: 아래 일시 중 1~2일 봉사(11월 22일(화)~25일(금) 13:00~17:00, 11월 29일(화)~12월 2일(금) 13:00~17:00) 문의: 온누리지역아동센터(031-491-9601) TP41기 단기선교사 훈련생 모집 기간: 2022년 12월 26일 2023년 1월 20일 장소: Acts29비전빌리지 자격: 선교지에서 1~2년간 사역하기를 원하는 자 접수: www.visionvillage.org 마감: 11월 25일까지 문의: 031-331-8188, 8213 평택온누리M센터 차세대 교사모집 모집: 몽골, 중국, 베트남 등 다양한 배경의 이주민, 다문화 가정의 차세대 자녀들을 섬겨주시길 교사 시간: 유치부~초등3학년(11:00~12:30), 초등4학년~중학생(11:00~14:00) 문의: 김연경 선교사(010-3299-1712) 안산 온누리M센터 성탄 연합예배 및 M Festival 성탄 선물 후원 요청 물품: 목도리, 장갑 등 겨울용품 및 생활용품, 소량 후원 가능 문의: 정연웅 간사(031-491-9650)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양재 O2. 573. 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주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최성문 팀장(010-6481-5567)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꿈땅2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 차세대 14:00 예배 예꿈3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꿈땅3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기쁨홀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청년부)	갈렙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11:20(발달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Cristian Neira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924-2703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러방핸드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온누리세라핌함창단 단원 모집 지휘: 최영은 성가사 모집: 초 1~중 1 연습: 매주 토, 일요일 오후 2~4시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성가대 문의: 010-9927-4224 CMN 시온팀 동역자 모집 모집: 치과 외 사역: 여름 해외 아웃리치 및 매월 넷째 주일 안산M센터 의료사역 문의: 이백권 팀장(010-3388-5331) 케냐 마사이부족 엔게레수나 어린이 후원 1. 5-12세 읽을 수 있는 영어 책(학습지는 받지 않습니다) 2. 운동화(사이즈 190~230) 3. 아이들의 공책, 필기 도구 4. 집에 안 쓰고 가지고 있는 수건(욕실 타월) 보내실 곳: 양재 목회지원실 문의: 임정윤 간사(570-7469) 온누리교회 양재 캠퍼스 목회지원실 간사 모집 업무: 교회 행정 및 목회사역 지원 문의: 02-570-7447, 7396 *세부사항은 교회 홈페이지 알림판참고
--	---	---	--	--

부천 O32. 322. 9686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2:00 / 4부(대학청년) 4:00 / 5부 7: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0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1부 9:00, 영아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주일 오전 11:30 꿈아이홀 어린이영어예배(JEM) 오후 2:00 예꿈홀 중국어예배 오후 2:00 두란노홀	수원 O31.895.6500 토요주일예배 토요패밀리워십, 드림씨드, 사이닝키즈, 어와나 10:00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열린새신자예배 2:00 대학청년(주일) 오후 2시 비전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5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심야기도회 매주 수 오후 8:00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9:00, 11:30 조이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초1~2) 9:00, 11:30 사랑홀 / 초등부(초3~4) 9:00, 11:30 경찬홀 / 소년부(초5~6) 9:00, 11:30 대광빌딩 4층 / 중등부 9:00, 11:30 비전홀 / 고등부 9:00 믿음홀 영어예배 차세대 오전 11:30 믿음홀	대전 O42. 825. 3642 토요주일예배 10:00 본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주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 6부 19:00 / 세종교육관 본당 1부 9:00 / 2부 11: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20 본당 / 6:00 세종교육관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땅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꿈땅 11:30 402호 / 유년부 11:30 304호 / 초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홀 / 고등부 9:00 누리홀 / 세종교육관 파워웨이브 9:00 402호	남양주 O31.565.9686 토요주일예배 10:30 3층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대학청년) 14:00 / 4부(저녁) 19:00 / 행복한 하나예배(탈북민) 11:00 온유홀 / 다문화예배 15:30 꿈땅홀 외국어예배 힌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1호 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4호 새벽예배(월~금) 오전 5:20 3층 본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본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3층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2층 예꿈홀 / 유치부 9:00 2층 예꿈홀 / 유년부 9:00 2층 꿈땅홀 / 초등부 11:30 2층 꿈땅홀 / Awana 토요일 10:00 2층 꿈땅홀 / 중등부 오전 11:30 기쁨홀 / 고등부 9:00 기쁨홀
평택 O31.651.9680 토요주일예배 10:30 2층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본당 / 2부 11:30 본당 / 3부(영어예배) 14:00 대학청년(주일) 14:20 3층 301호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매주 수 오후 1:30 3층 파워웨이브실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본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7:3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4층 영아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초등부 9:00 3층 예꿈 예배실 / 유년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파워웨이브 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본당	인천 O32.437.9686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4:00 대학청년 16: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사이닝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홀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파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예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11:20 영상예배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00 소망홀 주중예배 수요여성예배 10:00 본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본당	강동 O2.475.9686 토요주일예배 11: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11:30 / 3부(프라미스) 14:00 / 3부(프라미스U) 14:00 사랑홀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기쁨홀 / 유치부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사랑홀 / 초등부 11:30 드림홀 / 중고등부 9:30 사랑홀 장애인예배 사랑부 9:00,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19:30 본당 금요기도회 20:00 새벽예배 오전 6:20 본당	양지 O31.331.8171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Y.대학청년) 14:30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드림씨드홀 / 유아부 11:30 무어홀 / 유치부 11:30 위더스홀 / 유년부 11:30 아펜젤러홀 / 초등부 11:30 킬보른홀 / 중등부 11:30 박모세홀 / 고등부 11:30 박모세홀 주일기도모임 예배증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펠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예배 10:30 박모세홀 or 아펜젤러홀 금요성령집회 21:00 시안홀 새벽예배 월~금 5:20 시안홀

제1419호 | 2022년 11월 26일(토)

http://www.onnuri.org

국내 온누리교회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 (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양재 이성준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포로 31길 70 햇불선교센터 부천 윤길중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수원 김소리 목사 (031) 895-6500 1706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남양주 이기복 목사 (031) 565-9686-8 (대표) 11946 구리시 이문로 154 진성빌딩 2-5층 평택 신동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1로 2길 61 2층 인천 서경남 목사 (032) 437-9686 (대표) 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강동 이준호 목사 (02) 475-9686 06353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양지 박철용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계로62번길 20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기도처 태안온누리 임용성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서산온누리 임용성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봉화온누리 엄정소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미서부 얼바인 박신용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샌디에이고 이민욱 목사 1-619-847-4147 88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팜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 Guam 96913 ■미동부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시카고 이종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401 7th Ave.(18th Floor) New York, NY 10001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미북부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앵커리지 서재범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밴쿠버 박태영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오세아니아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190 18 MAIN Ave, Lidcombe NSW2141 Austria 오를랜드 유현록 목사 64-21-0810-3132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 홍콩 홍재호 목사 852-2506-0089 221-227 Austin Tower 22-26 Austin Avenue, Tsim Sha Tsui, KLN, HK ■일본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8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오사카 이영선 목사 81-6-6121-2015 (542-0083) Naniwa 3F 1-3-19Higasisinsaibasi Chuoku Osaka Japan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8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요코하마 니시아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아치요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 -CI NAKA -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교토 권영학 목사 81-75-748-98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중동 아부다비 김도균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베트남 정재욱 목사 84-8-5412-2773 3SL20-1 Grandveiv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	--	--	---	--

섬기는 분들

◆담당목사

이재훈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이상준 윤길중 김소리
김상수 이기복 신동식 서경남
이준호 박철용

◆부목사(전임)

김미향 강은수 강지영 고병석
권오환 권용갑 김혜영 김도윤
김미정 김병조 김선재 김성욱
김성웅 김승겸 김상수 김승완
김승훈 김명배 김요성 김용민
김윤식 김재석 김재송 김정희
김종민 김중아 김중호 김철희
김태용 김태완 김한구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지형 노혜태
도옥환 럼문홍 문영재 문장원
박근범 박시형 박성은A 박성은B
박성천 박전중 박영준 배행삼
백인규 변대식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기섭 신원석 스티브차
안시영 양성민 양재경 여성민
오 민 오은규 유영순 유승현
유진아 윤매리아 윤석원 윤현규
이강현 이기원 이기훈 이길랍
이비오 이서진 이승민 이우랍
이윤재 이원진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준인 이찬우 이한규
임용선 장동원 정재원 전병천
전신익 전재표 정상훈 정성진
정승철 정찬호 정현석 정형근
조동욱 조영홍 조바울 조준목
조현수 조영호 최대훈 최성규
최성민 최영진 최용준 최중현
최형준 추대식 하성희 하정환
한은선 한화수 한송희 홍기완
허원희 황종연

◆전도사(전임)

김은혜 신현민 송동주 오현교
이상욱 이진기 이호준 주하늘
전진미 카와무라 요시키

◆경배와찬양 목회자

이수태반

◆협동목사

김도일 류모세 방성기 이기복

◆부목사(파트)

가 나 강정모 김래위 김바울
김병석 김병철 김세환 김은하
김종영 김태주 김해경 네트라
뉴이엔은 鄭鳴謙 박지마
박영규 백승현 비 킬 서영철
생무애는 사가르 에리카스톨스
월리엄 이상광 이세영 이진이
이진희 윤준석 윤치연 전 진
제인랑 차제이미 최정현

◆전도사(파트)

강하람 강현구 권여람 김가희
김동규 김반석A 김반석B 김세미
김수영 김영신 김의연 김종균
김주영 김경무 김경호 김지선A
김지선B 김진석 김진희 김태광
김하은 김한빛 김현경 남 해
민근홍 민혜영 박미애 박세연
박 성 박성배 박성원 박새미
박예슬 박유진 박지수 박찬양
박태훈 방예린 배명지 백요한
서예찬 송유진 송선진 송예찬
백인규 변대식 신대중 신새벽
심은섭 심애연 안무택 양현모
오국현 오성광 오대경 우승민
이민규 이준원 유석현 유성하
유요한 유현우 유호동 윤석무
윤신혁 윤종연 윤대정 윤효정
이명희 이민규 이사무엘 이상은
이선영 이승희 이시하라 노리코
이신숙 이신임 이아루프 이요한
이진수 이주원 이찬양 이태호
이 한 이현영 이형목 이휘영
임광명 임노완 임동현 임송아
임진숙 임정민 장광석 장영주
장요한 장지훈 장성원 장영영
정준혁 정영선 정예은 정주영
정희애 제영민 조민희 조슬기
조은광 지수정 진성희 진유석
최규중 최민정 최명훈 최은영
최혜정 한용태 하영은 하정현
홍세나 홍슬기 황승남
황인선 황유일

◆사역장로

강기석 강영재 강의선 강인지
강찬석 구재영 권득한 권영석
관용성 권철준 김경선 김경철
김대욱 김광동 김광진 김광진
김기호 김남열 김명종 김명철

김상섭 김성준 김상인 김기복
김성국 김수영 김승열 김영수
김 완 김용성 김 웅 김용배
김원규 김의득 김원중 김윤식
김종진 김용성 김진화 김장철
김진국 김창호 김철수 김하중
김현철 이상권 노재한 노홍규
류지영 문성기 문창근 문창호
문충실 문형남 박 공 박병근
박봉래 박상송 박석봉 박성근
박영대 박용국 박종현 박찬빈
박태성 배 문 백남인 백승웅
백호준 백홍기 상병선 서진봉
서찬교 성장섭 순한기 송만석
송영범 송영태 송유신 송일섭
송재길 송창진 신민인 신영각
신우권 신현중 심상달 심재욱
심창구 심춘보 안국영 안성영
안용대 안종인 안태환 양유식
양주원 양재수 엄대진 오성연
우광범 원우현 유병훈 유안영
유재현 윤기홍 윤성열 유이준
윤영선 윤영진 윤형주 윤창근
이건재 이경찬 이관수 이광형
이국주 이남수 이동희 이두송
이만식 이무용 이병현 이상기
이상욱 이영걸 이영세 이영철
이용경 이용하 이우곤 이용대
이창로 이재정 이재규 이재준
이재호 이종순 이창남 이 철
이한영 이현조 이화영 이희주
장양식 장형준 전구영 전정하
정강무 정동영 정병균 정보원
정순종 정영원 정영호 정재택
정재현 정희태 조규상 조성근
정수업 정진하 정파종 정희원
조창진 조수일 주용일 차승철
차준우 천영무 최득린 최 명
최선수 최진성 최창규 최창수
최종길 최희영 편무호 한갑수
한규종 한덕중 한양희 한준대
한형식 함국성 함선호 허형석
홍종일 홍기명 홍태표 홍병식
홍종철 황영욱 황용오 황재규

◆시무장로

강경국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인희 강은철 강경재 강철호
강태욱 고다영 고영주 광병철
곽진성 곽희준 권순형 권오습

서초구가족센터 '예비부부교실' 참여자 모집

내용: 결혼 가치관, 인생곡선 공유, 성격차이 이해, 건강한 대화법 교육

일정: 11/05(토), 11/12(토) 13:30~17:30
신청: 온라인 신청(서초구가족센터 홈페이지 홍보지 참고)
문의: 서초구가족센터 김수경(070-7477-2406)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자 중 경로식당 배식 및 위생 관리 봉사활동 진행(시간: 11:20~13:30)
문의: 관원주 사회복지사(02-3474-6080)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봉사자 모집(단체, 개인 봉사자 가능)
일시: 평일 10:30~13:30 ※점심식사 제공, 시간조율 가능
문의: 장은정 팀장(070-4340-2510)

서초구립네트나무쉼터 IT 교육봉사단 2기 모집

모집인원: IT 교육봉사에 관심 있는 서초구민 15명
모집기간: 11월 1일(화)~13일(일)
주요활동: IOT 스마트로봇 및 스마트부스(1:1교육) 운영, 스
마트폰 기초 강의 진행 및 보조강사
문의: 김현숙 사회복지사(02-6953-7133-4)

권오환 권용갑 권혜영 김도윤
김미정 김병조 김선재 김성욱
김성웅 김승겸 김상수 김승완
김승훈 김명배 김요성 김용민
김윤식 김재석 김재송 김정희
김종민 김중아 김중호 김철희
김태용 김태완 김한구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지형 노혜태
도옥환 럼문홍 문영재 문장원
박근범 박시형 박성은A 박성은B
박성천 박전중 박영준 배행삼
백인규 변대식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기섭 신원석 스티브차
안시영 양성민 양재경 여성민
오 민 오은규 유영순 유승현
유진아 윤매리아 윤석원 윤현규
이강현 이기원 이기훈 이길랍
이비오 이서진 이승민 이우랍
이윤재 이원진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준인 이찬우 이한규
임용선 장동원 정재원 전병천
전신익 전재표 정상훈 정성진
정승철 정찬호 정현석 정형근
조동욱 조영홍 조바울 조준목
조현수 조영호 최대훈 최성규
최성민 최영진 최용준 최중현
최형준 추대식 하성희 하정환
한은선 한화수 한송희 홍기완
허원희 황종연

이학일 이태달 이현규 이흥선
임 훈 임광순 임병수 임성범
임정열 임현태 임호영 임희창
장 광 장경문 장경식 장광열
장규환 장문석 장선철 장영철
정영수 정한배 정광열 정대서
정명호 정문규 정상기 정영규
정영기 정영주 정영택 정영환
정운섭 정운오 정원만 정응화
정일영 정재범 정진호 정태경
정학영 제무성 조대식 조대희
조병현 조성수 조성현 조성환
조희정 조희준 조희동 조재량
진종구 차준환 최도성 최민철
최봉림 최상근 최석민 최성환
최영재 최주관 최한우 최현재
최현수 최호림 하성기 하주현
한백진 한복규 한상규 한왕식
한장혁 한정현 한필규 한일성
합정철 허 경 허광수 허복만
허영남 허영환 허필우 홍갑진
홍선호 홍의택 홍정표 홍충선
홍해남 황병원 황상윤 황성룡
황윤일 황외서

◆명예장로

김종수 박동순 박찬구 이승규
이광만 이원로 이혁상 정옥룡
정광택 정병수 정성건 지성한
채수삼 최장길 황용식

◆협동장로

강승모 김갑선 김정훈 김 준
남영태 류수광 패트릭스 박자인
박영희 양조승 오상근 유재건
이경희 정지석 주치수 최대화
최원호 최준훈 추교병 함지인
황재익

◆성가사

강내우 강순영 강중현 강혜영
김기택 김진주 김병우 김병오
김제일 김은혜 김경결 김정환
김지형 김혜경 김형준 김하정
남윤창 문보람 박은혜 박용규
박종규 손창우 송정희 신수경
신준환 오승현 오지훈 유신애
윤은희 윤지현 이미선 이민호
이명근 이은정 이성민 이세미
이수연 이혜경 임진소 조익현
전병곤 전지영 정성미 채미현
최경원 최영은 최윤석 최지현
최진아 최재영 최혜경 최훈희
홍용식

양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카페스 자동문 안쪽)

상담접수: 02-793-2997, 02-3215-3675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상담: 신앙과 심리상담(개인, 부부, 아동, 청소년, 가족)
심리검사: 각종 심리검사, T&A(학습 성격 유형/진로 검사)
특수상담: 법률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30~12:00
인터넷 중독 상담

양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카페스 자동문 안쪽)

상담접수: 570-7536~7(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영어 상담 가능)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일요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세무 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반주자

강영우 강영은 강예은 고상욱
고은찬 김강리 김기아 김병석
김보라 김보름 김은실 김은영
김수현 김영찬 김은실 김은영
김은지 김인영 김정국 김지은
김지훈 김진수 김진희 김현정
김형주 김효중 남궁진 남민우
남예셀 노성희 노소라 문예지
문희정 박아령 박요셉 박유진
박선희 박지훈 배영근 송효빈
신선호 신은혜 심현보 안소라
안은영 안지연 안희준 안우영
염주희 왕희준 유은혜 유재경
유종광 유지혜 윤정희 윤주순
윤진영 이나래 이 준 이강식
이슬기 이애리 이애나 이예은
이지원 이지혜 이혜진 임현우
장재우 장현호 정경미 정다혜
정우찬 정주희 정지은 정진우
조민지 조영혜 천은진 최영근
최요한 최은미 최지훈 홍서영
황지영

◆반주자

강영우 강영은 강예은 고상욱
고은찬 김강리 김기아 김병석
김보라 김보름 김은실 김은영
김수현 김영찬 김은실 김은영
김은지 김인영 김정국 김지은
김지훈 김진수 김진희 김현정
김형주 김효중 남궁진 남민우
남예셀 노성희 노소라 문예지
문희정 박아령 박요셉 박유진
박선희 박지훈 배영근 송효빈
신선호 신은혜 심현보 안소라
안은영 안지연 안희준 안우영
염주희 왕희준 유은혜 유재경
유종광 유지혜 윤정희 윤주순
윤진영 이나래 이 준 이강식
이슬기 이애리 이애나 이예은
이지원 이지혜 이혜진 임현우
장재우 장현호 정경미 정다혜
정우찬 정주희 정지은 정진우
조민지 조영혜 천은진 최영근
최요한 최은미 최지훈 홍서영
황지영

◆반주자

강영우 강영은 강예은 고상욱
고은찬 김강리 김기아 김병석
김보라 김보름 김은실 김은영
김수현 김영찬 김은실 김은영
김은지 김인영 김정국 김지은
김지훈 김진수 김진희 김현정
김형주 김효중 남궁진 남민우
남예셀 노성희 노소라 문예지
문희정 박아령 박요셉 박유진
박선희 박지훈 배영근 송효빈
신선호 신은혜 심현보 안소라
안은영 안지연 안희준 안우영
염주희 왕희준 유은혜 유재경
유종광 유지혜 윤정희 윤주순
윤진영 이나래 이 준 이강식
이슬기 이애리 이애나 이예은
이지원 이지혜 이혜진 임현우
장재우 장현호 정경미 정다혜
정우찬 정주희 정지은 정진우
조민지 조영혜 천은진 최영근
최요한 최은미 최지훈 홍서영
황지영

◆반주자

강영우 강영은 강예은 고상욱
고은찬 김강리 김기아 김병석
김보라 김보름 김은실 김은영
김수현 김영찬 김은실 김은영
김은지 김인영 김정국 김지은
김지훈 김진수 김진희 김현정
김형주 김효중 남궁진 남민우
남예셀 노성희 노소라 문예지
문희정 박아령 박요셉 박유진
박선희 박지훈 배영근 송효빈
신선호 신은혜 심현보 안소라
안은영 안지연 안희준 안우영
염주희 왕희준 유은혜 유재경
유종광 유지혜 윤정희 윤주순
윤진영 이나래 이 준 이강식
이슬기 이애리 이애나 이예은
이지원 이지혜 이혜진 임현우
장재우 장현호 정경미 정다혜
정우찬 정주희 정지은 정진우
조민지 조영혜 천은진 최영근
최요한 최은미 최지훈 홍서영
황지영

◆반주자

강영우 강영은 강예은 고상욱
고은찬 김강리 김기아 김병석
김보라 김보름 김은실 김은영
김수현 김영찬 김은실 김은영
김은지 김인영 김정국 김지은
김지훈 김진수 김진희 김현정
김형주 김효중 남궁진 남민우
남예셀 노성희 노소라 문예지
문희정 박아령 박요셉 박유진
박선희 박지훈 배영근 송효빈
신선호 신은혜 심현보 안소라
안은영 안지연 안희준 안우영
염주희 왕희준 유은혜 유재경
유종광 유지혜 윤정희 윤주순
윤진영 이나래 이 준 이강식
이슬기 이애리 이애나 이예은
이지원 이지혜 이혜진 임현우
장재우 장현호 정경미 정다혜
정우찬 정주희 정지은 정진우
조민지 조영혜 천은진 최영근
최요한 최은미 최지훈 홍서영
황지영

◆반주자

강영우 강영은 강예은 고상욱
고은찬 김강리 김기아 김병석
김보라 김보름 김은실 김은영
김수현 김영찬 김은실 김은영
김은지 김인영 김정국 김지은
김지훈 김진수 김진희 김현정
김형주 김효중 남궁진 남민우
남예셀 노성희 노소라 문예지
문희정 박아령 박요셉 박유진
박선희 박지훈 배영근 송효빈
신선호 신은혜 심현보 안소라
안은영 안지연 안희준 안우영
염주희 왕희준 유은혜 유재경
유종광 유지혜 윤정희 윤주순
윤진영 이나래 이 준 이강식
이슬기 이애리 이애나 이예은
이지원 이지혜 이혜진 임현우
장재우 장현호 정경미 정다혜
정우찬 정주희 정지은 정진우
조민지 조영혜 천은진 최영근
최요한 최은미 최지훈 홍서영
황지영

◆반주자

강영우 강영은 강예은 고상욱
고은찬 김강리 김기아 김병석
김보라 김보름 김은실 김은영
김수현 김영찬 김은실 김은영
김은지 김인영 김정국 김지은
김지훈 김진수 김진희 김현정
김형주 김효중 남궁진 남민우
남예셀 노성희 노소라 문예지
문희정 박아령 박요셉 박유진
박선희 박지훈 배영근 송효빈
신선호 신은혜 심현보 안소라
안은영 안지연 안희준 안우영
염주희 왕희준 유은혜 유재경
유종광 유지혜 윤정희 윤주순
윤진영 이나래 이 준 이강식
이슬기 이애리 이애나 이예은
이지원 이지혜 이혜진 임현우
장재우 장현호 정경미 정다혜
정우찬 정주희 정지은 정진우
조민지 조영혜 천은진 최영근
최요한 최은미 최지훈 홍서영
황지영

◆반주자

강영우 강영은 강예은 고상욱
고은찬 김강리 김기아 김병석
김보라 김보름 김은실 김은영
김수현 김영찬 김은실 김은영
김은지 김인영 김정국 김지은
김지훈 김진수 김진희 김현정
김형주 김효중 남궁진 남민우
남예셀 노성희 노소라 문예지
문희정 박아령 박요셉 박유진
박선희 박지훈 배영근 송효빈
신선호 신은혜 심현보 안소라
안은영 안지연 안희준 안우영
염주희 왕희준 유은혜 유재경
유종광 유지혜 윤정희 윤주순
윤진영 이나래 이 준 이강식
이슬기 이애리 이애나 이예은
이지원 이지혜 이혜진 임현우
장재우 장현호 정경미 정다혜
정우찬 정주희 정지은 정진우
조민지 조영혜 천은진 최영근
최요한 최은미 최지훈 홍서영
황지영

◆반주자

강영우 강영은 강예은 고상욱
고은찬 김강리 김기아 김병석
김보라 김보름 김은실 김은영
김수현 김영찬 김은실 김은영
김은지 김인영 김정국 김지은
김지훈 김진수 김진희 김현정
김형주 김효중 남궁진 남민우
남예셀 노성희 노소라 문예지
문희정 박아령 박요셉 박유진
박선희 박지훈 배영근 송효빈
신선호 신은혜 심현보 안소라
안은영 안지연 안희준 안우영
염주희 왕희준 유은혜 유재경
유종광 유지혜 윤정희 윤주순
윤진영 이나래 이 준 이강식
이슬기 이애리 이애나 이예은
이지원 이지혜 이혜진 임현우
장재우 장현호 정경미 정다혜
정우찬 정주희 정지은 정진우
조민지 조영혜 천은진 최영근
최요한 최은미 최지훈 홍서영
황지영

◆반주자

강영우 강영은 강예은 고상욱
고은찬 김강리 김기아 김병석
김보라 김보름 김은실 김은영
김수현 김영찬 김은실 김은영
김은지 김인영 김정국 김지은
김지훈 김진수 김진희 김현정
김형주 김효중 남궁진 남민우
남예셀 노성희 노소라 문예지
문희정 박아령 박요셉 박유진
박선희 박지훈 배영근 송효빈
신선호 신은혜 심현보 안소라
안은영 안지연 안희준 안우영
염주희 왕희준 유은혜 유재경
유종광 유지혜 윤정희 윤주순
윤진영 이나래 이 준 이강식
이슬기 이애리 이애나 이예은
이지원 이지혜 이혜진 임현우
장재우 장현호 정경미 정다혜
정우찬 정주희 정지은 정진우
조민지 조영혜 천은진 최영근
최요한 최은미 최지훈 홍서영
황지영

◆반주자

강영우 강영은 강예은 고상욱
고은찬 김강리 김기아 김병석
김보라 김보름 김은실 김은영
김수현 김영찬 김은실 김은영
김은지 김인영 김정국 김지은
김지훈 김진수 김진희 김현정
김형주 김효중 남궁진 남민우
남예셀 노

du+ duplus

복음을 읽는 새로운 습관, 두플러스

마음을 전하고 싶은 연말연시,
미자립교회 목회자, 해외 선교사, 동역자에게
두플러스 이용권을 선물하세요!

두플러스 구독자를 위한 특별 할인

기간 • 2022.11.01 ~ 2022.12.31

두플러스의 콘텐츠를 제한 없이! (파일 형태 제외)

두플러스 프리미엄 플랜 (1년 이용권)

- 생명의 삶 PLUS, 목회와신학, 그말씀, 과월호까지
- 성경 검색과 설교를 위한 다양한 목회자료를 검색하는 아카이브

정가 240,000 원 **20%** 특별 할인가 **192,000 원**

QT 또는 독서만 원한다면!

두플러스 QT 플랜 (1년 이용권)

- 생명의 삶, Living Life, 전 연령 QT지

두플러스 도서 플랜 (1년 이용권)

- 무제한 독서! 전자책과 성우 낭독 오디오북까지

정가 118,000 원 **20%** 특별 할인가 **95,000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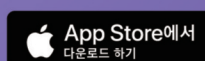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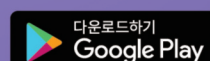
구독 문의 **02.2078.3234**

특별 할인가는 전화 또는 채팅을 통해 상담과 결제가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에서 '두플러스'를 검색 후 채널을 추가하세요.



PC와 모바일을 동시에. 지금 **두플러스 Q** 를 검색하세요!

홈페이지 www.du.plus
모바일 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 하세요.



duplus 두플러스는 두란노서원에서 시작하는 크리스천 콘텐츠 플랫폼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건강한 기독교 콘텐츠를 제공합니다.